

식민도시 이리의 개발과 재조일본인 사회의 동향*

이명진**

목 차

- | | |
|------------------------------|---------------------------|
| 1. 들어가며 | 4. 일본인의 이권 확보와 식민지배 체계 구축 |
| 2. 지역중심지 급마의 쇠퇴와 식민도시 이리의 부상 | 5. 나가며 |
| 3. 이리 거주 일본인의 인구구성과 사회계층 | 참고문헌 |
| | <Abstract> |

국문초록

본 논문은 일제강점기 전북 이리의 도시개발 과정을 분석하고, 이를 주도했던 재조일본인 사회의 특성과 식민지배 권력을 구축하는 과정을 정리한 것이다. 이리는 1995년 도농통합으로 익산군과 통합된 지역으로 오늘날의 익산시 시내 권역이 이리의 핵심구역이었다. 일제강점기 이리의 개발은 군산과 전주의 기착지였다는 점과 익산군 내 재지 세력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는 점에서 일본인들의 주목을 받았다. 1912년 호남선 철도와 이리역 부설로 이리의 개발가능성을 본 일본인들은 빠르게 이주했고, 그 결과 이리는 급격한 도시화를 이룩했다. 이 과정에서 1910년대 일본인들은 조합을 통해 도시개발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 그리고 10년이 채 지나지 않은 1917년에 지정면(指定面)이 되었다. 1920년대의 제한된 지방자치제도 하에서는 1910년대 도시개발을 주도했던 일본인들이 지역의 정치 세력으로 부상하기에 이른다. 이들은 주민대회를 통해 요구사항을 당국에 진정했

* 본 논문은 필자의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인 「전북 이리(裡里)의 식민지배 체제와 저항 연구」의 일부를 발췌하여 정리한 것이다.

** 익산시문화도시지원센터 시민공동체팀 대리, E-mail: lmj2917@naver.com

고, 일부 요구사항은 반영됐다. 이렇게 구축된 식민지배 권력을 바탕으로 이르는 그들이 원했던 식민도시로 완성된다.

주제어 : 이리 재조일본인, 식민도시, 면협의회, 호남선 철도, 지정면

1. 들어가며

1900년대 초, 서구열강을 비롯한 일제가 조선을 침탈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일 때, 한편에서는 근대적 의미의 도시가 조선에 형성되었다. 그러나 이는 조선 내부의 움직임이 아닌, 식민지배의 기반을 마련하려 했던 열강들의 압력에 의한 형성이었다. 1900년대 초에는 이미 개항장을 중심으로 근대적 의미의 도시가 태동 단계에 있었다. 1905년 러일전쟁 이후 일제가 한반도의 지배권을 사실상 확보한 상태에서는 일본인의 내륙 진출이 가속화되었다. 이에 따라 조선의 전통적 도시 질서가 해체되었고, 개항장을 넘어 내륙에도 근대적 의미의 도시가 출현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 주목한 전북 이리(裡里)는 일본인의 내륙 진출로 형성된 대표적인 도시이다.

이리는 1995년 이전까지 전라북도의 서북단에 존재했던 도시이다. 본래 우리말 솜리로 불렸던 지역으로 일제 강점을 전후하여 한자명인 이리(裡里)로 불린 곳이다.¹⁾ 1995년 도농통합 정책으로 익산군과 이리시가 통합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 익산시의 시내 권역으로 불리는 인화동·중앙동·평화동·마동·동산동 일대가 이리였으며, 이 가운데 중앙동은 이리의 핵심구역이었다. 이리 도시개발의 중심에는 러일전쟁 이후 내륙으로 이주한 일본인들이 있었다. 호남선 철도부설과 이리역 개통은 일본인들의 이리 이주를 가속화시켰다. 호남선의 중심에 있던 이리역은 남-북으로는 목포와 대전을, 동-서로 군산과 전주를 연결하는, 이른바 ‘사통팔달’의 교통요지로 성장하게 된다. 즉 이리 도시화의 중심에는 이리역이 있었다. 이러한 성장에 대해 일본인들은 ‘미증유(未曾有)의 일’ 또는 ‘육일승천(旭日昇天)의 기세’라고 표현할 정도로 급격하게 진행됐다.²⁾

그동안 일제강점기 근대도시의 형성에 관한 연구는 개항장과 수도 경성을

1) 이리문화원 부속향토사연구소, 1989, 『내고장 裡里의 뿌리』, 이리문화원, 37쪽.

2) 山下英爾, 1915, 『湖南寶庫 裡里案内』, 惠美須屋書店; 宇津木初三郎, 1928, 『全羅北道發展史』, 文化商會.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개항장 부산에 관한 연구가 가장 많이 이루어졌다.³⁾ 이리와 같이 철도를 근간으로 성장한 내륙 신흥도시에 관한 연구는 2000년대 중반 이래로 대전과 김천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지만, 앞선 연구에 비하면 미흡한 실정이다.⁴⁾ 특히 대전은 경부선과 호남선이 교차하는 지역으로 호남선과 전라선이 교차하는 이리와 유사한 성격을 보이는 도시이다. 다만 차이점이 라면 도시개발이 본격화된 시기이다. 대전은 경부선 철도가 부설된 1905년 전후로 도시개발이 진행됐지만, 이리는 호남선 철도가 부설된 1912년 전후로 도시개발이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시기적 차이는 도시개발을 주도했던 일본인 사회의 형성과정에서도 두 도시 간에 차이를 보이게 된다.

한편 일제강점기 재조일본인 사회에 관한 연구는 그동안 꾸준히 진행됐지만, 정치사와 경제사가 주류이다. 그러나 2000년대 이래로 사회사와 문화사 영역으로 연구 분야가 확장되고 있다.⁵⁾ 이리의 재조일본인 사회에 관한 연구는 정승진·마츠모토 다케노리(松本武祝)·김경남·진실·신귀백의 연구가 주목할 만하다.⁶⁾ 이들의 연구는 이리의 재조일본인 사회에 대한 단서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리 사회를 움직였던 재조일본인 사회에 관한 사회사적 분석을 해보고자 한다. 연구에서 재조일본인 사회에 주목한 것은 이리의 도시화

-
- 3) 손정목의 연구를 시작으로 우리나라 도시사 연구의 지평이 넓어졌다. 일제강점기 경성에 관한 연구는 다양한 관점에서 진행되었다. 근대도시의 형성과 구축과정부터 경성의 사회사적 연구 외에도 도시민들의 일상생활, 문화, 소비와 문학작품을 통한 사회적 연구가 다수 이루어졌다. 이 밖에 지역별로는 부산, 목포, 군산 등의 개항장에 관한 연구도 연구성과가 상당히 축적되어 있다.
 - 4) 송규진, 2002, 『일제강점 초기 식민도시 대전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지역발전연구』 8,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75-193쪽; 김일수, 2016, 『일제강점기 김천의 일본인 사회와 식민도시화』, 『사림』 56, 수선사학회, 237-270쪽; 고윤수, 2018, 『재조일본인 쓰지 긴노스케를 통해서 본 일제하 대전의 일본인사회와 식민도시 대전』, 『서강인문논총』 51,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67-105쪽.
 - 5) 이동훈은 최근 재조일본인의 연구 동향을 주제별로 정리하였는데 다음과 같다. ①재조일본인 단체에 관한 연구, ②도시사 및 지역사 분야 연구, ③식민지 지배정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총독부 관리에 대한 연구, ④재조일본인 개인에 관한 연구, ⑤해방 이후 재조일본인의 귀환 사업에 관한 연구 등으로 분류하였다. (이동훈, 2012, 『재조일본인 사회의 형성과 연구 논점에 관한 시론』, 『일본연구』 83,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연구소, 71-74쪽)
 - 6) 정승진, 2012, 『위계적 복합공간으로서의 식민도시, 이리』, 『아세아연구』 55(4),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마츠모토 다케노리, 2016, 『식민지 조선의 농업학교와 지역사회』, 『역사문화연구』 59,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진실, 2014, 『일제강점 초기 일본인의 이리 이주와 도시 형성』,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경남, 2018, 『제국의 식민지 교통 통제 정책과 이리 식민도시 건설』, 『지역과 역사』 43, 부경역사연구소; 신귀백, 2020, 『재조 승려 오하시의 이리(裡里)에서의 식민활동 연구』, 『지방사와 지방문화』 23(2), 역사문화학회.

과정에 이들이 지속적으로 개입했고, 개발과정에 있어서 이들의 역할이 상당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들은 지역 내에서 지배 권력을 확보해 나갔다. 물론 일제강점기 신흥도시 개발에 일본인의 개입이 이리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전북지역의 철도 요지였던 이리의 도시화 과정을 보는 것은 호남 지역의 미곡수탈에 있어서 이리가 어떠한 위치에 있었는지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리의 재조일본인 사회를 분석하는 것은 일제가 어떠한 방식으로 식민도시를 경영하고 개척해 나갔는지에 관한 연구 의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지역사의 관점에서 이들의 구체적인 활동이 밝혀진다면 이리 사회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지역사의 공백을 메꾸는 데 일조할 것으로 생각된다.

2. 지역중심지 금마의 쇠퇴와 식민도시 이리의 부상

1) 일제강점기 전후의 금마와 이리

이리가 속했던 익산군의 중심지는 본래 금마(金馬)였다. 금마는 현재 익산시의 동북부에 있는 지역이다. 고대 삼한시대에는 마한 54국 가운데 하나인 건마국(乾馬國)이 존재했고, 삼국시대에는 백제 무왕(武王)이 천도했던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금마는 오래전부터 재지 세력이 존재하는 지역중심지로서 위상이 있는 곳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1956년 남태보(南泰普)가 저술한 『금마지(金馬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금마지』에서는 “마을의 기강이 가장 엄격하고 양반과 상민의 등급이 분명하여 서로 경계를 넘지 않는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살기 어렵게 된 양반들이 금마 일대로 모여들어 양반 호수가 상민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고 한다. 호적에 실린 4,000여 호 중 약 1/3인 1,500여 호가 양반 가구였고, 구문천면 검지리(九文川面 檢知里)⁷⁾의 경우 90호 중 79호가 양반 호였을 정도이다.⁸⁾

금마는 지리적으로 남으로 삼례와 전주, 북으로 여산과 공주로 통하는 길목에 위치한다. 즉 금마는 조선 시대의 전통적인 도로체계로 보면 호남에서 한성으로 가는 노선에 속했다. 그래서 금마는 익산군의 행정중심지로 성장할 수

7) 구문천면은 현 익산시의 삼기면 기산리, 오룡리, 연동리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8) 남태보(이의강 역), 2019, 『金馬誌』, 익산시, 177쪽; 송준호, 1983, 『1750년대 익산지방의 양반』, 『전북사학』 7, 전북사학회, 376쪽.

있었다. 1871년 편찬된 『호남읍지(湖南邑誌)』에 수록된 익산군 지도를 살펴보면 익산군은 10개 면으로 구성된 지역이었다.⁹⁾ 지금의 금마면 동고도리와 서고도리가 위치한 지역은 1914년 부군면 통폐합 이전에는 군내면(郡內面)으로 불렸지만, 1914년 이후 군내면은 미륵면(彌勒面)과 통합되어 지금의 금마면으로 개편되었다.¹⁰⁾ 군내면에는 객사를 비롯한 향교와 동헌 등이 있었다. 따라서 익산군의 본래 지역중심지는 금마였다. 그래서 한말에는 익산군청을 비롯한 근대적 행정·교육기관이 바로 금마에 있었다.

한편 이리는 본래 전주부 남일면(南一面)에 속했던 지역으로 현재의 행정구역 기준으로 현재의 주현동·인화동·갈산동 일대이다. 1899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비로소 익산군에 편입되었다.¹¹⁾ 그동안 이리는 10여 호에 불과한 한촌(閑村)으로 거주민의 대다수가 노획으로 생계를 이어나간 지역으로 알려져 왔다.¹²⁾ 그러나 최근 이리에 관한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다. 1900년 3월 15일 목포주재 일본영사관 군산분관 소속의 히라지로 히코스케(平城彦助)의 조사보고에 따르면, 기존에 알려졌던 사실과는 전혀 다른 사실이 확인된다. 내용에 따르면 이리는 100호에 700여 명이 거주했고 정기시장이 열리는 “다소 번영한 곳”이라고 했다. 그리고 기존에 알려진 바와 다르게 거주민의 대다수가 부유했고, 군산항에서 들어온 온갖 잡화들이 집결하는 곳이라고 했다.¹³⁾ 즉 그동안 알려졌던 이리의 모습과는 사뭇 다르게 묘사되고 있다. 요컨대 본래 이리로 불렸던 지금의 인화동 일대는 1900년 이전부터 몰자왕래가 활발했고, 정기시장이 열렸던 곳으로 오래전부터 몰자왕래가 빈번했던 지역이었다.

그렇다면 일본인들은 왜 이리에 주목했을까.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됨에 따라 대한제국은 일본의 보호국으로 전락했다. 이와 함께 개항장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일본인들은 내륙으로 진출했다.¹⁴⁾ 아래 <그림 1>을 살펴보면 전북 내륙으로 진출했던 일본인들이 왜 이리를 주목했는지 짐작해볼 수 있다.

9) 군내면(郡內面), 제석면(帝石面), 울촌면(栗村面), 지석면(支石面), 용제면(龍梯面), 춘포면(春浦面), 두촌면(豆村面), 두천면(豆川面), 구문천면(九文川面), 미륵면(彌勒面)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현재의 금마면(金馬面), 삼기면(三箕面), 춘포면(春浦面), 왕궁면(王宮面), 팔봉동(八峰洞) 일대이다.

10) 익산문화원, 2006, 『익산향토지』 II, 익산문화원, 358-359쪽.

11) 『益山郡面ノ廢合ニ關スル件』, 1914.10.13., 全羅北道; 익산군지편찬위원회, 1981, 『익산군지』, 원광사, 343쪽; 이리문화원 부속향토사연구소, 1989, 『내고장 裡리의 뿌리』, 이리문화원, 37쪽; 이리시사편찬위원회, 1989, 『이리시사』 이리시사편찬위원회.

12) 山下英爾, 1915, 『湖南寶庫 裡里案内』, 惠美須屋書店, 3쪽.

13) 오일환 역, 2020, 『강제병합 이전의 전라북도 및 군산지역 상황』, 전북연구원 전북학연구센터, 13쪽

14) 윤건차, 2013, 『식민지 일본인의 정신구조』, 『제국과 식민지의 주변인』, 보고사, 50쪽.



- *주 1: ㉠-1: 이리, ㉠-2: 금마, ㉡ 군산부, ㉢ 전주면, ㉣ 김제면.
- *주 2: 지도는 조선총독부에서 제작한 1918년 전라북도 관내 지도임.
- *출처: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정보플랫폼.

그림 1. 이리의 지리적 위치

1899년 군산(㉡)에 개항장이 설치되면서 이리(㉠-1)의 서쪽에는 새로운 상업 도시가 형성되었다. 그리고 전북의 대표적인 전통도시이자 행정중심지인 전주가 이리의 남동쪽(㉢)에 위치한다. 지리적으로 보았을 때 이리는 군산과 전주의 중간에 있고, 남쪽으로는 만경강과 넓은 곡창지대인 김제를 접하고 있다. 개항 이후 일본인들은 군산과 전주 간 인적·물적 이동이 급증하였는데, 기차지로서 이리는 적절한 공간이었다. 익산군의 본방인 금마(㉠-2)는 군산에서 전주를 연결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위치이다. 물론 군산과 전주 간 만경강을 통한 수운 교통이 가능했지만, 곡류천의 한계와 기상 여건에 따라 운송이 제한될 수 있었다. 따라서 일본인들은 위험이 내재된 수운 교통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한 육로 교통로가 필요했다. 즉 이리의 지리적 조건은 전북 내륙으로 진출한 일본인들이 주목할 수밖에 없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리를 개발하는 것이 익산군 내 재지 세력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곳이기도 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금마는 오랜 기간 집성촌을 형성한 재지 세력이 존재했기 때문에 일본인들 관점에서 금마를 개발하기에는 큰 부담을 느꼈을 것이다. 하지만 이리는 재지 세력(또는 유림)보다 시장

을 기반으로 성장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개발에 있어서 재지 세력과 갈등이 상대적으로 적은 곳이었을 것이다. 요컨대 이리는 최적의 지리 조건과 도시개발의 방해 요소가 적은, 일본인으로서의 최적의 조건을 갖춘 곳이었다.

2) 호남선 철도부설과 이리의 부상

이리의 도시화를 촉발한 호남선 철도부설은 본래 조선인 중심으로 자력건설 운동을 전개하려 했다. 그러나 통감부가 설치된 이후 군산과 목포에 거주하던 일본인들이 호남선 철도부설을 강력히 청원하였다. 물론 그 이유는 전라도의 미곡을 일본으로 빠르게 실어 내기 위함이었다. 이 밖에도 전라도 일대의 의병 진압을 위해서도 호남선 부설이 시급함을 강조하였고, 그 결과 일본인들은 통감부로부터 호남선 철도부설을 승인받게 된다.¹⁵⁾ 결국 조선인 주도의 철도부설은 좌절되었고 통감부는 호남선 노선을 선정하였다.¹⁶⁾ 총 988만 원의 자본이 투입된 철도 공사는 1910년 5월부터 대전에서 측량을 시작하여 그해 10월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되었다. 이리-강경 구간은 1911년 3월, 이리-김제 구간은 12월부터 기공하였고, 1912년 3월 6일 이리역이 영업을 개시하기에 이른다. 이로써 1912년부터 이리역은 호남선과 군산선을 연결하는 철도요충지로 부상하게 되었다.¹⁷⁾ 이때를 기점으로 이리의 일본인 이주는 증가하였고, 이리의 도시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

근대기 새로운 교통수단인 철도의 부설은 개항장 설치와 더불어 신항도시 형성의 기반으로 작용했다. 이리와 같이 새로 철도가 통과하게 된 지역은 역이 들어선 자리를 중심으로 시가지가 새롭게 형성되거나, 기존에 도시가 형성된 곳이라면 더욱 발달하게 되었다. 반면, 철도 노선에서 벗어나 새로운 교통체계에서 제외된 기존 도시는 쇠락하기도 했다.¹⁸⁾ <그림 1>을 보면 금마(a-2)는 이리(a-1)를 중심으로 형성된 근대적 교통체계에서 철저히 배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이리는 근대적 교통체계에 편입되어 전북지역 미곡수탈의 기착지로 자리 잡게 된다.

15) 정재정, 1999, 『일제침략과 한국철도』, 서울대학교출판부, 142쪽.

16) 노선은 대전-가수원-두계-논산-강경-이리-김제-광주-송정리-영산포-목포 구간을 본선으로 하였다. 그리고 군산-이리 구간은 지선으로 연결하였다.

17) 朝鮮總督府 鐵道局, 1940, 『朝鮮鐵道四十年略史』, 朝鮮總督府 鐵道局, 239-241쪽.

18) 김하나, 2013, 『근대 서울 공업지역 영등포의 도시 성격 변화와 공간 구성 특징』,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6쪽.



*주: ㉠ 이리, ㉡ 신리.
*출처: 국립중앙박물관.



*주: ㉠ 이리, ㉡ 구이리.

그림 2. 1910년(좌)과 1917년(우)의 이리 지도

그렇다면 이리역 건설 전후 이리의 초기모습과 공간적인 변화는 어떻게 진행되었을까. 먼저 1910년 조선총독부가 측량한 지도를 살펴보면 ㉠구역은 이리(裡里)로, ㉡구역은 신리(新里)로 표기되어 있다. 다음으로 1917년 지도를 보면 역이 위치한 ㉠구역이 이리로, ㉡구역은 구(舊)이리로 표기되어 있다. ㉡구역은 현재의 인화동과 주현동 일대로 일본인이 유입되기 이전에는 농민들이 모여들어 시장이 섰다고 한다.¹⁹⁾ 설치시기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지만, 1880년 전후²⁰⁾ 또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군산 개항 전후인 1900년 무렵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군산 개항 이후 시장이 위치한 구이리는 군산과 전주를 왕래하는 상인들이 중간에 머무르면서 시장의 규모가 점차 커진 것으로 생각된다. 흔히 솜리시장(또는 이리시장)이라고 불리는 곳이 바로 <그림 2>에서 나타난 ㉡구역이다. 1907년부터 이리에서 대농장을 경영했던 오하시 요이치(大橋與市)가 ㉡구역에 농장사무소를 개설한 이유도 시장이 인접하여 상인과 물자의 이동이 빈번한 지역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다음으로 신리라고 불리는 ㉡구역은 호남선 철도부설과 이리역 건설로 완전히 새롭게 개발된 지역이다. 1910년 지도에서 볼 수 있듯이 신리에는 논과 밭

19) 익산군지편찬위원회, 1981, 『익산군지』, 원광사, 343쪽; 익산문화원, 2006, 『익산향토지』 II, 익산문화원, 182-183쪽.
20) 조선총독부 중추원 조사자료에는 “약 40년 전에는 동산리의 시장으로 이것을 구 수월리(水越里)로 이전하였음. 이전 후 2년을 경과하여 비단상인 김도일(金道一)의 주창에 의해 상업발전을 위해 현재의 시장위치로 이전하였음”이라고 기록하고 있다(朝鮮總督府中樞院, 1920, 『市場=關スル慣習(全羅北道 益山郡)』, 『全羅北道』).

만 존재할 뿐 촌락의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1917년 지도에서 ㉠구역을 보면 불과 7년 사이에 도시화가 상당히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리역을 중심으로 격자형 도로망이 구축되었고, 역 주변으로 철도사무소, 철도 관사, 상업시설 등이 들어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신리가 개발됨에 따라 본래 이리라고 불렀던 지역은 ‘구이리’로, 신리는 이제 ‘이리’로 불리게 되었다. 요컨대 철도와 역의 개설은 이리 내에서도 중심지 이동을 일으킨 것이다.

표 1. 일제강점기 익산군 내 익산면(이리)과 금마면의 인구증감 비교 (단위: 명, %)

연도	익산군		익산면(이리)			금마면		
	인구	증감률	인구	증감률	인구비중	인구	증감률	인구비중
1915	97,840	-	2,298	-	2.3	-	-	-
1925	135,503	38.5	13,403	291.9	9.9	5,334	-	3.9
1930	153,018	12.9	17,964	34.0	11.7	4,974	-6.7	3.3
1935	170,797	11.6	21,219	18.1	12.4	5,449	9.5	3.2

*자료: 朝鮮總督府, 1915, 『朝鮮總督府 統計年報』; 朝鮮總督府, 1935, 『朝鮮國勢調査報告』 4; 朝鮮總督府, 1930, 『朝鮮國勢調査報告』 4; 朝鮮總督府, 1925, 『簡易國勢調査速報』를 참고하여 표로 재구성함.

<표 1>을 살펴보면 익산군의 총인구에서 익산면(이리)이 차지하는 인구 비중은 시기가 지날수록 증가하지만, 금마면의 인구 비중은 1920년대와 1930년대를 비교했을 때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특히 1925년 인구증감률을 보면 익산군 전체 인구 증가율은 1915년과 비교하여 38.5% 증가하였지만, 익산면은 291.9%의 폭발적인 증가율을 보인다. 또한 인구수에서도 익산면은 금마면을 압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 이리의 인구증가 요인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이를 위해 호남선 철도가 지나는 주요 역의 1914년과 1930년의 인구변화를 비교했다(<표 2> 참고). 전국적으로 두 시기의 인구변화를 보면 1.63배로 증가한다.²¹⁾ 그러나 호남선 철도가 지나는 도시의 인구변화는 평균 3.65배로 전국평균보다 높다. 이리의 경우 6.49배로 전국평균으로 보았을 때나 호남선이 지나는 여타 도시보다도 높은 인구증가를 보인다. 특히 1930년 이리역을 이용하는 하차인원은 약 31만 명으로 타 도시와 비교해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1914년 이후 이리와 전주 구간을 잇는 전라선이 개통됨에 따라 이리역이 환승역으로서 기능을 했기 때문이다.

21)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 統計年報』의 연도별 통계 참고.

표 2. 호남선 내 주요 역의 인구와 운수일람

(단위: 명, 톤)

역명	1914년			1930년		
	인구	하차인원	도착화물	인구	하차인원	도착화물
군산	8,284	69,067	41,713	25,961	240,494	155,470
이리	2,744	82,090	19,380	17,803	314,886	45,122
김제	3,603	28,808	3,841	15,244	-	-
정읍	3,595	25,982	3,419	15,819	101,898	13,112
장성	-	10,796	1,687	11,609	-	-
송정리	10,655	32,846	11,988	11,403	149,691	14,743
목포	12,415	43,176	13,624	31,817	190,207	79,805

*자료: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 統計年報』를 연도별, 역별로 참고하여 재구성함.

도착화물량은 군산과 목포에 비해 적은 편에 속한다. 이는 호남의 미곡을 비롯한 물자들이 군산항과 목포항에 집결하여, 일본으로 반출되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당연한 결과로 보인다. 즉 이리역은 화물역의 기능보다 여객역의 기능이 중심이었다. 환승객이 왕래하는 이리역의 특성상 이리의 도시화는 상업을 기반으로 발전할 이유가 충분했다. 군산항을 중심으로 도시화가 이루어진 군산과 다른 형태의 상업도시가 탄생한 것이다. 그리고 일본인들의 이리 이주는 상업을 목적으로 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이리역 영업개시와 호남선 철도부설은 익산군 내에서 이리의 인구 비중을 증가시킨 요인으로 볼 수 있다. 기쿠치 겐조(菊池謙讓)는 이리의 급격한 성장세를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호남의 교통이 낳은 농촌이 이렇게까지 발달한 것은 자연적인 발달이다. 이리의 미래는 향후 필자의 예언을 기다리지 않아도 **‘대이리(大裡里)시대’-5만 명 도시**가 되는 대이리가 백제 고지(古地)에 흥하는 날은 얼마 남지 않을 듯하다. **대이리가 전주를 대신하고, 만경강을 지배하는 시대**가 이미 다가왔다.²²⁾

이리의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금마에 있던 주요 관공서들이 이리로 이전했다. 1911년 익산군청을 시작으로 현병분대, 우편소 등이 이리로 이전했다. 즉 이리가 익산군의 행정중심지가 된 것이다.²³⁾ 이리의 도시화는 일본인의 이

22) 菊池謙讓, 1925, 『朝鮮諸國記』, 大陸通信社, 136쪽.

23) 朝鮮總督府令 第111號, 1913.12.29.

주를 불러일으켰고, 이에 따라 행정과 생활 인프라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일본인이 주도한 단체를 중심으로 관공서 이전이 요구되었다. 관공서 이전을 주도했던 이리의 일본인들은 매우 조직적인 활동을 전개했다. 다음 장에서는 이리의 도시개발에 영향을 끼친 재조일본인 사회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리에서 지배적 위치를 점한 일본인들이 지역에서 어떻게 지배 권력을 확보해 나갔는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이리 거주 일본인의 인구구성과 사회계층

1) 강점 이전 일본인의 이리 이주

1899년 군산 개항으로 일본인들이 전북에 유입되기 시작했는데, 이들은 군산 배후의 곡창지대가 지닌 경제적 가치에 주목했다. 이와 함께 금강 일대의 상권을 개척할 필요성과 청국(淸國) 상인들의 밀무역 단속을 통해 일본인의 상업 활동을 도모하고자 했다.²⁴⁾ 일찍부터 일본인들은 익산과 김제 접경인 만경강 주변 농토를 주목했다. 예컨대 춘포면 대장촌과 오산면 일대가 대표적이었다. 1904년부터 호소카와 모리시게(細川護成)는 대장촌에 진출하여 대농장을 경영했다. 그리고 오산면에서는 “조선의 수리왕”으로 불렸던 후지이 간타로(藤井寛太郎)가 농지를 매입하여 후지흥업(不二興業)주식회사 전북농장을 설립했다. 이처럼 익산지역은 일제강점 이전부터 일본인들의 주목을 받았던 지역이었고, 관심 대상은 대농장 개척을 위한 농지수탈이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일본인들로부터 이리가 주목받은 시기는 언제부터인가.

『이리안내』에 따르면 이리에 처음 발을 디딘 인물을 1906년 이주한 다나카 도미지로(田中富次郎)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는 후쿠오카현(福岡縣) 출신으로 일본인들 사이에서 “이리의 개척자”이자 이리의 일본인 사회에서 “원조”로 불렸다.²⁵⁾ 짐작건대 다나카 도미지로는 군산 개항 이후 군산항으로 유입된 일본인 중 하나로 보인다. 그의 도선(渡鮮) 시기는 기록의 한계로 불분명하지만, 개항 직후 군산에 이주한 일본인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개항 직후 군산에는 ‘對州閣’로 대표되는 세력이 지배 권력을 확보하고 있었는데, 다나카

24) 김영정 외, 2006, 『근대 항구도시 군산의 형성과 변화』, 한울, 44-46쪽.

25) 山下英爾, 1915, 『湖南寶庫 裡里案内』, 惠美須屋書店, 3쪽.

도미지로는 이들과 경쟁에서 도태되어 이리로 이주한 것으로 보인다.

對州關 세력은 군산 개항 이후 최초로 군산에 이주하고 권력을 장악하였는데, 이들은 출신지는 쓰시마(對馬島)였다. 개항과 동시에 군산에는 목포영사관 분관이 설치되었는데, 분관 주임인 아사야마 겐조(淺山顯藏)는 쓰시마 출신이었다. 따라서 그는 자신과 동향인들에게 특혜를 부여했고, 그 결과 對州關이라 불릴 만큼 쓰시마 출신이 군산 내에서 큰 세력을 형성하였다. 그리하여 쓰시마 출신과 타 지역 출신의 일본인 이주자 간에 갈등은 필연적이었다. 그러나 아사야마 겐조 사후 쓰시마 출신의 권력이 약화되면서 타 지역 출신 일본인들이 주도권을 확보하기 시작했다.²⁶⁾ 아마도 이리에 이주를 결정한 일본인들은 군산을 장악한 對州關에 반발한 집단이거나, 혹은 이미 군산에 형성된 유력 일본인 집단에 속하기 어려워 새로운 개척지로 이리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언급한 이리 개척의 원조로 불렸던 다나카 도미지로만 해도 규슈 후쿠오카현 출신으로 對州關에 속하지 못했다.

『이리안내』를 살펴보면 1906년부터 1910년까지 일본인 인구 및 호구 현황은 극히 적은 수치를 보인다. 1906년 4명의 이주자로 시작된 이리의 일본인은 1910년 16명 수준에 그친다.²⁷⁾ 이 시기 일본인 인구 유입은 유의미한 수치라고 하기엔 무리가 따른다. 정주를 위한 유입보다 이리 지역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하고, 개발가능성을 염두에 두어 토지매입을 위해 이주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호남선 철도부설을 전후한 1912년을 기점으로 이리의 인구는 폭발적으로 성장한다. 일제 강점 동안 이리의 인구변화는 뒤에서보다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2) 연도별 인구변화와 사회 계층구조

일제강점 이후부터 1940년대까지 이리의 일본인 인구 동태를 파악하기 위해 당시의 인구통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이리의 총인구와 일본인의 인구, 호구, 증감률 등을 4년 단위로 정리하였고, <표 3>에서 확인할 수 있다.

26) 이준식, 2006, 『일제하 군산의 ‘유력자’ 집단과 지역 정치』, 『일제하 만경강 유역의 사회사』, 혜안, 408-409쪽.

27) 山下英爾, 1915, 『湖南寶庫 裡里案内』, 惠美須屋書店, 10-11쪽.

표 3. 이리의 총인구 및 일본인 호구 수의 연도별 현황 (단위: 명, 호, %)

연도	총인구	일본인 호구수				일본인 증감률
		호수	인구수	남	여	
1912	1,650	270	946	532	414	0.0
1916	2,886	443	1,434	745	689	51.6
1920	4,054	402	1,447	748	699	0.9
1924	7,089	743	2,817	1,418	1,399	94.7
1928	15,076	926	3,731	-	-	32.4
1932	17,392	959	3,939	-	-	5.6
1936	20,519	1,040	4,150	-	-	5.4
1940	22,347	1,050	4,390	-	-	5.7
1943	27,463	943	4,274	-	-	-2.6

*자료: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 統計年報』의 각 연도별 통계를 토대로 재구성함.

*1924년 이후 통계는 이리 통계를 익산면 전체 인구에 포함하여 계산함.

*일본인 증감률은 당해 연도 인구수-전년도 인구수를 전년도 인구수로 나눔.

이리에 거주한 일본인 인구는 강점 후인 1912년 946명이었던 것이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이루어 일제 말인 1943년에는 4,274명에 이르고 있다. 이는 강점 후 31년간 3,328명의 일본인 인구가 증가한 것으로 약 351.8%에 달하는 증가율로 매우 높은 증가 추세를 보인다. 동일 기간 조선 내 전체 일본인 평균 증가율보다도 높은 수치를 보인다.²⁸⁾ 한편 조선인을 포함한 전체인구로 보면 1912년 1,650명, 1943년에는 27,463명으로 약 1,564.4%의 높은 인구 증가율을 보인다. 이는 일본인뿐만 아니라 도시개발과 함께 유입된 조선인 노동자층이 높은 인구 증가율로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전반적으로 일제강점기 동안 이리의 일본인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였지만, 1930년대를 기점으로 이전처럼 큰 증감률을 보이지 않는다. 실제로 이리의 전체인구는 크게 증가했지만,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1930년대에 들어서면 이리 내 일본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23.0%로 1913년에 비해 큰 폭으로 낮아지게 된다. 일제 강점 초기에는 일본인 인구 비중이 68.4%로 일본인 인구가 조선인 인구보다 많았지만, 1930년대 이리가 읍(邑)으로 승격된 이후로 일본인 인구 비중은 오히려 낮아졌다. 이는 이리 내 조선인 인구 비중이 높아졌음을 의미

28) 조선 내 전체 일본인 인구는 1910년 171,543명으로 일제강점 말기인 1942년에는 752,823명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약 338.8%의 증가율로 이리 거주 일본인 인구 증가율보다 약간 낮은 수치를 보인다(홍순권, 2011, 『일제시기 부산지역 일본인사회의 인구와 사회계층구조』, 『근대도시와 지방권력』, 선인, 121쪽 참고).

하기도 한다. 그런데도 전북 도내에서 군산부 다음으로 높은 일본인 인구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전주와도 큰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이리는 일제가 패망할 때까지 일본인의 영향력이 도내에서 군산 다음으로 큰 도시였음을 알 수 있다.

표 4. 전라북도 내 주요 도시의 일본인 구성비 비교 (단위: %)

연도/도시명	전북	군산	전주	이리
1913	2.4	17.7	15.7	68.4
1926	2.2	33.5	18.3	42.1
1934	2.4	25.5	14.7	23.0

*자료: 全羅北道廳, 『全羅北道要覽』과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 統計年報』의 각 연도별 통계를 토대로 재구성함.

*전주 통계는 부군청 소재지였던 전주면, 전주읍, 전주부 통계를 기준으로 정리함.

*이리 통계는 군청 소재지였던 익산면, 이리읍 통계를 기준으로 정리함.

앞에서 본 <표 3>을 근거로 일제강점기 이리 거주 일본인 세대의 호당 인구수와 성비를 살펴보겠다. 우선 1910년대(1912~1919년) 거주 일본인 세대의 호당 인구수는 연평균 3.22명으로 나타난다. 1920년대(1920~1929년)까지 호당 인구수는 3.90명, 1930년대는 호당 인구수가 4.03명으로 일본인 세대의 호당 인구수는 증가세를 보인다. 1920년~1930년대까지 이리의 일본인 가구는 평균 3~4명 정도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1925년 조선에 거주한 일본인들의 전체 평균은 호당 인구수가 3.75명으로 전국평균 수치보다는 높지만, 동년도 일본 본국의 호당 평균 인구수인 4.87명보다는 낮은 수치를 보인다.²⁹⁾

일제 강점 초 이리에 거주한 일본인의 본적지를 살펴보면 야마구치현(山口縣)이 45명, 후쿠오카현(福岡縣) 출신이 40명, 오카야마현(岡山縣) 출신이 27명으로 나타난다. 이리 이주 일본인은 규슈(九州) 지방과 주고쿠(中国) 지방이 위치한 서남부 지방 출신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규슈 지방의 일본인들이 군산을 통해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표 5> 참고).³⁰⁾

29) 홍순권, 2011, 『일제시기 부산지역 일본인사회의 인구와 사회계층구조』, 『근대도시와 지방권력』, 선인, 128쪽.

30) 규슈와 주고쿠 지방은 일본의 서부 지역으로 동부 지역에 비해 조선으로의 이민이 상당히 활발히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지방 일본인들은 조선에서의 일확천금을 노리기 위해서 이주했거나 일본 본토에서의 생활이 안정적이지 않아 조선 이주를 통해 생활의 안정을 이루기 위해 도향하였다(진실, 2014, 『일제강점 초기 일본인의 裡里 이주와 도시 형성』,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7쪽).

표 5. 1915년 이리 거주 일본인의 본적지별 인구수 (단위: 명, %)

구역	지역명	합계
규슈(九州)	후쿠오카(40), 나가사키(24), 오이타(24), 사가(18), 구마모토(16), 미야자키(2)	124(26.1)
주고쿠(中國)	야마구치(45), 오카야마(27), 히로시마(18), 시마네(7), 돗토리(4)	101(21.3)
간사이(關西)	미에(18), 오사카부(18), 와카야마(16), 교토부(15), 효고(14), 시가(9), 나라(1)	91(19.2)
주부(中部)	아이치(19), 기후(13), 후쿠이(8), 시즈오카(7), 나가노(7), 도야마(6), 이시카와(5), 야마나시(3), 니가타(1)	69(14.5)
시코쿠(四國)	가가와(17), 에히메(15), 도쿠시마(12), 고치(3)	47(9.9)
간토(關東)	도쿄부(12), 가나가와(6), 군마(6), 사이타마(5), 도치기(3), 지바(2), 이바라키(2)	36(7.6)
도호쿠(東北)	후쿠시마(3), 미야기(2), 이와테(1)	6(1.3)
홋카이도(北海道)	홋카이도(1)	1(0.2)
합계		475(100.0)

*자료: 山下英爾, 1915, 『湖南寶庫 裡里案内』, 惠美須屋書店, 10-11쪽을 바탕으로 재구성함.

일제강점기를 통틀어 재조일본인의 출신 지역을 보면 큰 변동 없이 야마구치현, 후쿠오카현 순이며 그 아래로 규슈, 주고쿠, 시코쿠 등 서부지방이 차지하고 있다. 대체로 이 지역들은 관리나 상인을 다수 배출한 대도시라는 특징이 있다.³¹⁾ 동일시기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전북으로 이주한 일본인은 총 17,761명으로 집계된다. 이 가운데 1,000명 이상의 이주자를 보이는 지역은 전국에 분포했던 재조일본인들의 출신지와 동일하게 나타난다. 야마구치현이 1,822명, 후쿠오카현 1,382명, 오이타현(大分縣) 1,125명 순으로 규슈와 주고쿠가 가장 많은 이주자를 배출하고 있다.³²⁾

다음으로 이리에 거주 일본인들의 사회 계층구조를 살펴보자. 일제강점기 조선에 거주한 일본인의 직업별 인구통계는 조선총독부가 1910년에서 1942년까지 작성한 『통계연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통계연보』는 조선 전체, 부(府)와 도(道) 단위 통계만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리에 거주했던 일본인의 직업별 인구통계를 파악하기 어렵다. 그러나 전라북도청에서 발간한 『전라북도통계연보』와 『이리안내』를 통해 이들의 직업을 단편적으로나마 파악할 수 있었다. 『전라북도통계연보』에서 일본인의 직업별 인구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시기는 1913년과 1914년뿐이다. 그 이후 시기는 부·군 통계가 아닌 도 단위의

31) 윤건차, 2017, 『식민지 일본인의 정신구조』, 『제국과 식민지의 주변인』, 보고사, 50쪽.

32) 朝鮮總督府全羅北道編, 1915, 『朝鮮總督府 全羅北道統計年報』, 全羅北道, 28-29쪽.

합산된 통계치만 확인할 수 있다. 해당 통계연보에서는 일본인 호구의 직업별 조사 결과를 ①농업·목축·임업, ②어업·제염업(製鹽業), ③광업·공업, ④상업·교통업, ⑤공무·자유업, ⑥무직·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자 등을 기준으로 분류했다. 아래 <표 6>은 1914년 전북의 주요 지역에 거주한 일본인의 직업을 정리한 것이다.

표 6. 1914년 전라북도 주요 지역의 일본인 직업 (단위: 호, 명)

직종/부군명	군산부	전주군	익산군
농업·목축·임업	32(74)	184(392)	384(1,001)
어업·제염업	49(66)	-	2(2)
광업·공업	232(368)	149(204)	58(93)
상업·교통업	413(693)	206(404)	261(628)
공무·자유업	189(308)	336(445)	62(108)
기타	233(372)	106(213)	66(147)
무직·직업미상	61(185)	5(13)	-
합계	1,209(2,066)	986(1,671)	833(1,979)

*자료: 朝鮮總督府 全羅北道, 1915, 『朝鮮總督府 全羅北道統計年報』, 18-19쪽을 바탕으로 표를 재구성함

<표 6>은 이리를 포함한 익산군에 거주한 일본인의 직업별 인구통계이다. 이를 통해 이리에 거주한 일본인의 직업을 추정해볼 수 있다. 먼저 익산군 내 일본인 직업 중 눈에 띄는 직종은 농업·목축·임업이다. 이는 이리가 위치한 익산면 외에 일본인의 농업 이주가 활발했던 춘포면 대장촌(大場村)과 오산면의 인구가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특기할 만한 사항은 전주나 군산에 비해 높은 농업 인구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러일전쟁 이후 일제가 내세웠던 ‘만한이민론(滿韓移民論)’ 때문으로 보인다. 만한이민론은 당시 일본 내부에서 겪고 있던 인구·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했다. 만한이민론의 영향으로 일본인들은 조선 전역에 토지투기를 시작했다. 그 결과 군산 배후지역에 투기 열풍이 불어 닥치면서 농업 이주가 시작되었다.³³⁾ 따라서 군산 배후였던 익산 지역에 일본인의 농업 이주가 활발히 전개된 것으로 보인다.

농업·목축·임업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는 직종은 상업·교통업이다. 이는 이리역을 포함한 함열역, 황등역, 구이리역, 대장역 등에서 근무한 인원까

33) 최원규, 2006, 『일제하 지주제의 확대와 토지소유의 변동』, 『일제하 만경강 유역의 사회사』, 혜안, 143-144쪽.

지 포함된 결과로 보인다. 상업과 교통업에 종사한 일본인들의 세부 직종에 대해서는 아래 <표 7>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무·자유업 종사인구가 군산과 전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는 편인데, 이 시기 익산의 근대적 행정기구가 군산과 전주보다 완비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표 7. 1915년 이리 내 일본인의 주요 직업 (단위: 명, %)

대분류	세분류	합계
농업	농업(48)	48(9.0)
공업	목수(13), 과자제조(4), 와(瓦)제조업(3), 정미업(3), 옥돌장(3), 장유양조(2), 미장이(2), 주조(2)	32(6.0)
교통업	철도원(91), 운송업(3), 車帳場(2)	96(18.0)
상업	제상(68), 잡화상(15), 금대업(13), 요리점(12), 음식점(11), 여관(9), 이발점(6), 목욕탕(4), 미곡상(4), 생어상(4), 나막신상(4), 전당포(3), 재목상(3), 오복상(2), 자전거상(2), 재봉업(2), 사진사(2), 약매상(2), 도자상(1)	167(31.3)
공무·자유업	군인(13), 관리(12), 청부업(11), 대서업(5), 교원(5), 의사(4), 승려(2)	52(9.8)
기타 유업자	기타(138)	138(25.9)
계		533(100.0)

*자료: 山下英爾, 1915, 『湖南寶庫 裡里案内』, 惠美須屋書店, 10-11쪽을 바탕으로 재구성함.

*대분류는 『朝鮮總督府 統計年報』를 기준으로 함.

<표 7>은 『이리안내』에 나타난 1915년도 당시 일본인의 주요 직업이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상업·교통업 분야의 인구가 타 직종에 비해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1915년 기준 이리 내 일본인 거주자는 2,053명이다.³⁴⁾ 이 가운데 약 25.9%의 일본인 인구를 반영한 것이다. 『이리안내』에 수록된 자료가 관공서에서 발행된 자료가 아니라는 점을 참작했을 때 무직이나 직업을 따로 신고하지 않은 자들은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고 표를 분석하면 1910년대 이리의 일본인들이 종사한 직업 중 높은 비율을 보이는 직종은 상업이다. 이는 이리역 개통 이후 역 주변에 상권을 형성하기 위해 상인의 이주가 활발했기 때문이다. 또 한편으로는 시가지가 개발됨에 따라 이주한 일본인들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필수 상점들이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높은 수치를 보이는 것은 교통업으로 이는 이리역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가운데 단연 높은 수를 기록하는 것은 철도원이다. 이리역

34) 山下英爾, 1915, 『湖南寶庫 裡里案内』, 惠美須屋書店, 10쪽.

이 호남본선, 군산선, 경편철도 노선이 합류하는 지점이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당연한 결과이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금대업과 전당포 비율이 상업인구의 약 9.6%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1909년 전주의 일본인 금대업 종사자는 약 1.8%에 불과하다.³⁵⁾ 이로써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이리 개발 초기 일본인 사이에 토지매매와 부동산 투기 활동이 매우 활발히 진행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금융기관을 대신한 금대업과 전당포가 이리에서 활성화된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업 직종의 세부 직종을 살펴보면 목수, 와(瓦)제조업, 옥돌장, 미장이 등의 직종이 눈에 띈다. 이는 이리의 도시화로 토목건설이 활발이었음을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다.

표 8. 익산군의 산업별 호구 구성 (단위: 호, %)

직업별	1914년		1926년	
	조선인	일본인	조선인	일본인
농업·목축·임업	15,024(77.1)	384(46.1)	20,122(80.4)	365(27.2)
어업·제염업	20(0.1)	2(0.2)	23(0.1)	1(0.1)
광업·공업	299(1.5)	58(7.0)	813(3.2)	160(11.9)
상업·교통업	3,094(15.9)	261(31.3)	1,431(5.7)	327(24.3)
공무·자유업	315(1.6)	62(7.4)	546(2.2)	398(29.6)
기타	686(3.5)	66(7.9)	1,525(6.1)	82(6.1)
무직·직업미상	41(0.2)	-	566(2.3)	11(0.8)
합계	19,479(100.0)	833(100.0)	25,026(100.0)	1,344(100.0)

*자료: 1914년은 『朝鮮總督府 全羅北道統計年報』(1915), 1926년은 『益山郡勢一斑』(1927)을 바탕으로 표를 재구성함.

<표 8>은 1914년과 1926년의 익산군 산업별 호구 구성이다. 일본인 호구의 특징적인 것은 농업·목축·임업 종사 비율이다. 1914년에는 전체의 46.1%를 차지했지만, 1926년에는 오히려 27.2%로 비율이 낮아졌다. 호수로 봤을 때 1914년 384호에서 365호로 소폭 감소하였지만, 전체 직업군과 비교했을 때 확연히 감소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공무·자유업 종사자의 경우 1914년 7.4%에 불과하던 것이 1926년에는 29.6%로 22.2%가 증가하였다. 이는 1920년대 익산군, 특히 이리에 관공서를 비롯한 금융기관들이 완비됨에 따라 지역 행정의 기반이 어느 정도 마련됐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익산군의 전체 인구가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도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1914년 익산군 전체 인구는

35) 古川昭, 2005, 『湖南の日本人』, ふるかわ海事事務所, 23쪽.

95,753명이었고, 1926년 전체 인구는 134,358명으로 약 2배 인구가 증가했다.³⁶⁾ 익산군의 인구증가는 공무원직의 증가로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9. 1930년 전국평균과 전북 내 주요 도시의 직업별 인구 비율 (단위: %)

	전국평균	전북	군산부	전주면	익산면
농업	8.75	80.68	3.18	13.69	26.67
수산업	3.14	0.30	3.96	0.01	-
광업	0.42	0.05	0.25	0.01	-
공업	17.60	6.98	18.58	24.44	12.24
상업	25.72	4.81	37.06	26.47	27.55
교통업	8.99	0.69	16.30	4.61	3.83
공무·자유업	31.80	1.33	8.25	9.42	7.31
가사사용인	1.55	1.95	5.31	6.78	5.50
기타 유업자	2.03	3.22	7.12	14.56	16.77
유업자 비율	43.29	48.11	43.16	37.50	39.08

*자료: 朝鮮總督府, 1930, 『朝鮮國勢調査報告』를 바탕으로 재구성함.

*전주와 익산은 군청소재지인 전주면과 익산면의 통계를 바탕으로 산출하였음.

<표 9>는 1930년 전북지역과 전북 내 주요 도심지의 직업별 인구 비율을 산출한 통계이다. 조선인과 일본인 인구가 합산된 통계이다. 전북은 전북평야를 기반으로 농업종사 인구가 전체인구의 80.68%를 차지할 정도로 매우 높게 비율을 보인다. 다음으로 표를 통해 도시의 특성을 유추할 수 있는데, 먼저 군산부의 경우 상업 인구 비율이 37.06%로 높게 나타난다. 그리고 전주면의 경우 상업이 26.47%, 공업이 24.44%로 상업과 공업 종사인구 비율이 대등하게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익산면의 경우 상업이 27.55%, 농업이 26.67% 순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보자면 군산부는 상업도시의 성격을 띠며, 전주면은 상공업 도시, 익산면은 농업기반의 상업도시 성격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전북의 행정중심지였던 전주면의 공무·자유업 종사인구 비율이 9.42%에 불과했다. 이는 군산부와 익산면의 공무·자유업 종사인구 비율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당시 공무·자유업 종사자의 전국평균이 31.8%라는 점을 미루어 살펴보면 상당히 낮은 비율이다. 이를 통해 전주, 군산, 익산을 비롯한 전북지역의 행정이 최소 규모로 운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곧 행정력이 도시에 고루 분산되지 않고, 특정 지역에만 집중되었다는 것이다. 요컨대

36) 朝鮮總督府, 각년호, 『朝鮮總督府 統計年報』, 朝鮮總督府.

전북의 행정력이 전국평균에 비해 낮다는 것은 일제가 도시의 질적 성장보다 수탈에 집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에서 살펴본 자료들을 통해 이리에 이주했던 일본인들의 특성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리와 직접 관련된 자료는 익산군의 데이터를 통해 추론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도출할 수 있었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리는 상업과 교통 중심의 도시이면서 농업기반의 도시였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군산과 전주와는 다른 형태의, 즉 이리는 농업기반의 상업도시였다.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 이리의 상업은 일본인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여기서 한 가지 유추할 수 있는 사실이 있다. 상업이 발달했지만, 상점의 주요 수요층은 일본인이었고, 조선인 상권은 1920년대 붕괴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이리가 철저 수탈을 목적으로 한 도시였음을 의미한다. 다음 장에서는 1910년대와 1920년대 이리의 재조일본인들이 도시 내에서 식민지배 권력을 확보하기 위해 어떠한 활동을 전개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4. 일본인의 이권 확보와 식민지배 체계 구축

1) 자치적 조합운영과 지배 권력의 형성

이리에 거주했던 일본인들은 일제의 지배 권력과 일정한 관계를 맺으면서 이리와 인근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러나 호남선 철도부설 이전 이리는 주변 지역에 대한 그들의 영향력은 사실상 전무했다. 이리가 주변 지역인 오산면, 대장촌, 황등 일대에 영향력을 끼친 시기는 철도를 기반으로 도시화가 진행된 1912년 전후이다.³⁷⁾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이리의 재조일본인 사회는 작게는 이리시가지에 한정할 수도 있지만, 넓게는 이리를 중심으로 그 주위를 둘러싼 오산면, 대장촌, 황등 일대의 일본인들까지 포괄할 수 있다. 따라서 이리와 그 주변 인접지에 거주한 일본인들이 형성한 네트워크를 이리의 ‘유력자’ 집단으로 볼 수 있다. 이들 유력자 집단은 지역 내에서 자치적 성격을 가지거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를 조직했다. 일본인 유력자 집단은 지역사회에서 일정한 정도의 재산이나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 단체를

37) 정승진, 2012, 『위계적 복합공간으로서의 식민도시, 이리』, 『아세아연구』 55(4), 204-206쪽.

통해 지역사회의 권력 구조에 참여하는 민간인들이었다.³⁸⁾

이리의 재조일본인 사회는 후발지로서 군산에 비해 늦게 형성되었다. 군산과 같은 개항장은 이미 1899년 각국거류지회(各國居留地會)가, 러일전쟁 이후에는 군산일본인회가 조직되었다. 1906년 이사청이 설치되고 군산의 일본인들은 지역의 이권을 빠르게 장악했다.³⁹⁾ 군산뿐만 아니라 철도를 기반으로 성장했던 내륙도시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었다. 예컨대 대전, 김천과 같은 지역에서도 거류민회와 일본인회가 이미 조직되어 활동을 전개했다.⁴⁰⁾ 그러나 1910년 5월 24일 중앙에서 직접 지방을 관리하고자 했던 일제는 통감부령으로 거류민단과 일본인회를 폐지했다.⁴¹⁾ 한편 이리의 재조일본인 상황은 이들 도시와 다른 양상을 보인다. 1912년 전후로 일본인의 이주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들의 이권을 대변하는 단체들이 조직된다. 이리의 일본인 단체는 거류민단과 달리 해산을 꾀지 않고, 오히려 면 행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표 10. 1910년대 이리에서 조직된 재조일본인 단체

단체명	조직시기	주요 인물	주요 활동
이리번영조합	1911년 2월	枝吉元信, 扇米助, 田中富次郎, 田中數一, 三好財次, 古川千代吉, 猪飼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공서 이전 주도 ○ 기금으로 공공사업 추진 ○ 소방조 조직
이리학교조합	1912년 3월	枝吉元信, 扇米助, 佐藤幸三郎, 森島莊次郎, 大野新吉, 猪飼要, 倉田光藏, 横道只之助, 板井信藏, 久能實之助, 大木房男, 金木彌三次, 草ヶ谷英之助, 土車仁作, 今井宅次郎, 山崎増平, 青田竹治, 河本國三郎, 山内馬藏, 高山聰郎, 北川省馬, 林昌治, 江田住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신축 및 운영 ○ 소방조 조직 및 묘지관리 ○ 도시개발 전반에 관여 ○ 1945년 해방 전까지 이리에서 가장 큰 일본인 자치단체로 존재
이리소방조	1912년 6월	扇米助, 加藤正信, 猪飼要, 秋山春次, 在間甚太郎, 江田住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번영조합 기금으로 조직 ○ 조선인·일본인 혼성편제
이리위생조합	1913년	田中富次郎, 猪飼要, 扇米助, 三枝英文, 森島莊次郎, 李仁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조합과 민사무소에서 취급하던 위생사무 계승 ○ 오물처리, 하수처리 담당

38) 이준식, 2006, 『일제하 군산의 ‘유력자’ 집단과 지역 정치』, 『일제하 만경강 유역의 사회사』, 혜안, 401쪽.

39) 이준식, 앞의 책, 혜안, 405-408쪽.

40) 송규진, 2002, 『일제강점 초기 ‘식민도시’ 대전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아세아연구』 45(2); 김일수, 2016, 『일제강점기 김천의 일본인사회와 식민도시화』, 『사람』 56.

41) 동선희, 2006, 『일제하 조선인 도평의회·도회의원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12-13쪽.

단체명	조직시기	주요 인물	주요 활동
이리조합	1914년 6월	枝吉元信, 扇米助, 佐藤幸三郎, 森島莊次郎, 大野新吉, 猪飼要, 倉田光藏, 横道只之助, 吉田隼治, 久能實之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조합의 하부조직 ◦ 토목, 위생, 소방사무 처리 ◦ 학교조합 사무실 공유
이리을묘회	1915년 1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초빙 특강 ◦ 이리 거주 일본인 친목도모
이리청년회	1915년 10월	大橋即淨, 板井信藏, 川崎藤太郎, 大野新吉, 佐佐木長太郎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20세 남성으로 구성 ◦ 20세 이상은 특별회원 ◦ 청년 친목단체
제국제향군인회 이리분회	1915년 10월	板井信藏, 細川隆春, 土車仁作, 佐佐木長太郎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리현병분대 관하 재향군인 중심으로 조직 ◦ 1915년 기준 194명의 회원 보유 ◦ 군인출신자들의 친목단체

*자료: 山下英爾, 1915, 『湖南寶庫 裡里案内』, 惠美須屋書店; 宇津木初三郎, 1928, 『全羅北道發展史』, 文化商會를 바탕으로 재구성함.

이리의 일본인 단체는 1911년 이리번영조합(裡里繁榮組合)을 시작으로 여러 형태의 단체가 조직된다. 1912년 3월에는 이리학교조합, 1912년 6월에는 이리소방조, 1913년 이리위생조합, 1914년 6월 이리조합, 1915년 1월 이리을묘회(裡里乙卯會)을 비롯하여 그해 10월에는 이리청년회와 제국제향군인회 이리분회가 조직된다. <표 10>은 이리에서 조직된 재조일본인 단체를 주도한 인물들과 주요 활동을 정리한 것이다. 이러한 단체들은 기본적으로 이리번영조합의 기금으로부터 출발했다. 즉 1910년대 이리의 재조일본인 단체의 근간은 바로 이리번영조합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리번영조합과 이리학교조합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이리번영조합을 살펴보면, 번영조합은 1911년 2월 조직된다. 다나카도미지로(田中富次郎), 오오기 요네츠케(扇米助), 에다요시 모토노부(枝吉元信)⁴²⁾ 등 3인이 주축이 되어 조합을 조직한다. 이들은 이리 도시개발 초기에 이주한 일본인들이었다. 1915년 기준 30여 명의 조합원을 두고 있었는데, 이들의 활동은 개항장의 거류민단이나 일본인회와 유사했다. 조합 운영비는 조합원들로부터 일정 금액을 각출했고, 이를 바탕으로 공공사업을 전개했다. 그리고 조합 차원에서 이리 일대의 토지를 싼값에 매입하고, 도시개발로 토지가

42) 에다요시 모토노부는 오하시농장의 지배인이다. 본국에 있던 오하시 요이치(大橋與市)를 대신하여 이리에서 오하시농장의 대표자 자격으로 활동했다. 그가 죽은 후에 새로 지배인으로 온 야마자키 마스헤이(山崎増平)는 번영조합을 비롯한 학교조합의 모든 지위를 이어받게 된다.

격이 상승하면 매각하는 방식으로 조합 운영비를 확보했다. 즉 부동산 매매로 수익금을 벌어들인 것이다. 이렇게 확보된 자금으로 도로 건설, 학교건축, 도축장 권리매수 및 건설, 소방조 조직 그리고 병사(兵舍) 건설 등을 추진했다. 그리고 금마에 있던 주요 관공서와 공공기관의 이전을 추진했다.⁴³⁾

익산군청은 1911년 8월에 금마에서 이리로 이전했는데, 이리번영조합의 역할이 컸다.⁴⁴⁾ 번영조합을 주축으로 이리의 일본인들은 군 행정사무의 편의를 위해 이리로 군청 이주를 요구했다. 이 밖에도 금마에 주둔하던 헌병분대 이전에도 관여했다. 이에 1911년 4월에 이리로 헌병분대가 이전했다. 이 과정에서 조합은 헌병분대 청사 건축비용으로 200원을 희사했다.⁴⁵⁾ 일본인들에게 이리의 치안 공백은 도시개발에 있어서 위협 요소였기 때문이다. 『이리안내』에 따르면 “철도노동자를 비롯한 상인들의 이주 증가로 경찰 사무가 빈번해졌다”라고 했지만,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조선인과의 갈등, 이리 주변에서 활동했던 의병조직을 의식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번영조합은 1920년대까지 존속했다. 이후에는 상업회의소로 확대·개편되었고, 앞에서 언급한 사업 외에도 이리역 앞의 수많은 상가, 사업장, 이리시장의 운영을 담당하게 된다.⁴⁶⁾

다음으로 살펴본 단체는 이리학교조합이다. 학교조합은 번영조합과 함께 활동이 매우 두드러진다. 이리학교조합은 1910년 시행된 『학교조합령』에 의거하여 설립했다. 학교조합은 이리 내 일본인 거주 인구가 증가하자 교육기관의 필요성에 의해 조직되었다. 이 단체는 번영조합의 창립멤버 주도로 조직이 되었고, 번영조합과 마찬가지로 조합원비와 토지매매 수익 기금으로 운영됐다. 학교조합은 학교 교사 신축 외에도 시구역의 획정, 선로 신설, 도축장 권리매수 및 건설, 소방조 조직, 묘지관리 등 여러 방면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 즉 학교뿐만 아니라 이리의 도시개발 전반에도 관여한 것이다. 이들이 이렇게까지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학교조합령』에 근거한 것이다. 이 법령의 제1조에서는 “학교조합은 상황에 따라서 부대사업으로 위생 사무를 처리할 수 있음”⁴⁷⁾이라고 명시했는데, 이에 근거해 이리학교조합은 “위생 사무”라 볼 수 있는 소방조 업무와 묘지관리까지 관여했다.

43) 『金銀木杯下賜』, 1913.12.27., 『朝鮮總督府官報』 425; 山下英爾, 1915, 『湖南寶庫 裡里案内』, 惠美須屋書店, 37-39쪽.

44) 『益山郡ノ位置變更』, 1911.08.19., 『조선총독부관보』 293.

45) 山下英爾, 1915, 『湖南寶庫 裡里案内』, 惠美須屋書店, 1915, 16-38쪽.

46) 정승진, 2015, 『식민지기 학교조합과 호남의 일본인 이민자사회』, 『대동문화연구』 90,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345쪽.

47) 통감부령 제71호, 1909.12.27.

학교조합은 자치기구로서 그 권력이 점차 강해졌다. 왜냐하면 총독부가 학교조합만을 법인단체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또한 학교조합을 제외한 단체들은 조합원들로부터 조합비를 부과할 수 있는 강제 권한이 없었지만, 학교조합은 조합비를 부과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부여했다. 이는 곧 학교조합을 제외한 단체들의 권력과 권한이 약해질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이 결과 학교조합이 다른 단체들을 흡수하는 상황이 발생했다.⁴⁸⁾ 따라서 학교조합이 지역 자치조직으로서 지역의 지배 권력을 쥐게 되었고, 학교 운영 외에 도시 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단체에서 활동했던 일본인들을 살펴보면, 이들이 도시개발에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파악할 수 있다. 먼저 오하시 요이치(大橋與市)의 경우, 1912년 시가지 형성과 경영을 위해 본인 소유의 토지 7만여 평을 2년간 익산면에 무상임대했다. 그리고 1913년 이리정차장 부지로 밭 1,419평과 논 3,697평을 회사했으며, 1914년 군청 이전을 위해 부지 176평을 회사하여 총독부로부터 은배(銀杯)를 받았다. 이 밖에도 도로용 부지로 논 584평을, 1918년에는 익산면과 고산면을 잇는 3등 도로용 부지 2,800여 평을 회사하였다. 또한 이리 소방조 운영비로 350원을 회사하기도 했다.⁴⁹⁾

다음으로 번영조합의 부회장이었던 오오기 요네츠케(扇米助)는 1913년 이리정차장 도로부지로 216평을 회사했고, 1914년 군청 부지 20평을 회사하여 총독부로부터 목배(木杯)를 하사받았다. 오하시 요이치와 마찬가지로 도로 건설 부지와 자치조직의 운영자금을 지원했는데, 1918년에는 이리소방조 장비 구입비로 172원을 회사했다. 이 밖에 익산면 내 등외도로 부지로 295평을 회사하여 총독부로부터 은배를 받았다.⁵⁰⁾ <표 10>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오오기 요네츠케는 이리의 여러 단체에서 중복하여 등장한다. 그는 1910년대 이리 개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인물로 보인다.

48) 조미은, 2010, 「일제 강점기 재조선 일본인 학교와 학교조합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97-97쪽.

49) 「裡里의 宅地 貸付」, 『매일신보』, 1912.04.06.; 山下英爾, 1915, 『湖南寶庫 裡里案内』, 惠美須屋書店, 16-38쪽; 「木杯下賜」, 1914.07.21., 『朝鮮總督府官報』 591; 「銀木杯下賜」, 1915.06.02., 『朝鮮總督府官報』 848; 「木杯下賜」, 1915.09.17., 『朝鮮總督府官報』 938; 「銀木杯下賜」, 1918.07.24., 『朝鮮總督府官報』 1790; 「木杯下賜」, 1919.05.27., 『朝鮮總督府官報』 2037.

50) 「金銀木杯下賜」, 1914.07.21., 『朝鮮總督府官報』 591; 「木杯下賜」, 1914.12.14., 『朝鮮總督府官報』 710; 「木杯下賜」, 1915.03.31., 『朝鮮總督府官報』 795; 「木杯下賜」, 1918.09.25., 『朝鮮總督府官報』 1841; 「金銀木杯下賜」, 1918.12.03., 『朝鮮總督府官報』 1896.

오오기 요네츠케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자면, 쓰시마 출신으로 1896년 도선(渡鮮)하여 1908년 군산을 거쳐 이리로 이주한 인물이다.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다나카 도미지로, 에다요시 모토노부와 함께 이리 초창기의 이주자였다. 그리고 금마 소재의 군청과 헌병분대 이전을 청원한 인물 중 하나이다. 그는 이리에서 농업과 상업에 종사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번영조합을 비롯하여 학교조합, 소방조합, 위생조합 등 여러 단체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 1922년에는 이리 농림학교 설립 청원자 중 한 명이었고, 1924년에는 세무감독국을 이리로 유치하는 데 관여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오오기 요네츠케가 1910년대부터 이리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⁵¹⁾

이 밖에 이리 초기 이주자였던 다나카 카즈이치(田中數一), 미요시 자이츠구(三好財次), 후루카와 치요키치(古川千代吉) 등의 인물들도 오하시 요이치와 오오기 요네츠케처럼 이리 도시개발에 일정부분 관여했지만, 이들에 비하면 적은 편이다. 이들은 공공시설 건축을 위해 토지를 회사하거나 단체 운영을 위한 기금 납부 등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했다.⁵²⁾

이처럼 이리번영조합의 활동은 일제가 내세웠던 “개발을 통한 동화”, 다시 말해 지역개발을 통해 제국의 “내지(內地)”와 식민지 간 문명도의 격차를 줄여 궁극적으로 “내선융화(內鮮融和)”를 도모하고자 한 일제의 식민정책과 일치했던 것이다. 동화주의 “개발” 정책은 토지개발뿐만 아니라 철도부설, 미곡증산, 학교증설, 위생 및 의료시설을 비롯한 생활 인프라 설치 등 다양한 차원에서 벌어졌던 것이다.⁵³⁾ 이리에서는 이 모든 것들의 중심에 이리번영조합과 이리 학교조합이 있었다.

요컨대 1910년대 이리의 재조일본인들은 조합을 통해 도시개발과 면 운영 전반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면서 지역에서 식민지배 권력을 확보했다. 일제의 지배 권력 아래 이리의 재조일본인들은 주도적으로 식민도시의 경관을 구축해 나갔다. 그 결과 이리는 일본인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이 되어 1917년 10월 1일에 부(府)에 준하는 지정면(指定面)이 되었다. 지정면이 되고 면에서 직

51) 山下英爾, 1915, 『湖南寶庫 裡里案内』, 惠美須屋書店; 『稅務監督局爭奪, 全州裡里双方必死の運動裡里市民會の決議』, 『조선신문』, 1924.01.23.; 宇津木初三郎, 1928, 『全羅北道發展史』, 文化商會; 마쓰모토 다케노리, 2016, 『식민지 조선의 농업학교와 지역사회』, 『역사문화연구』 59,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55쪽.
 52) 『木杯下賜』, 1913.07.11., 『朝鮮總督府官報』 284; 『木杯下賜』, 1914.11.24., 『朝鮮總督府官報』 693; 『木杯下賜』, 1918.09.25., 『朝鮮總督府官報』 1841.
 53) 마쓰모토 다케노리·정승진, 2018, 『호남 지역의 위생·의료문제』, 『의사학』 27(3), 대한의사학회, 359쪽.

접 호별세와 지세를 부과하게 되면서 면 재정이 늘어났다.⁵⁴⁾ 이로써 면의 사업 범위가 공공사업 분야로 확대되었고, 자체적인 공공사업이 가능해졌다. 이로써 이리는 식민도시의 성격을 강하게 갖는 동시에 근대도시로 성장하는 조건을 갖추게 된다. 그리고 1920년대 문화정치의 일환으로 시작된 제한된 지방자치제도를 통해 조합에서 활동했던 인물들이 지역의 정치세력으로 부상하게 된다.

2) ‘제한된’ 지방자치와 지역 정치세력화

일제는 1914년 지방행정 체계를 장악하기 위해 부군면 통폐합과 「면제」를 실시했다. 이러한 제도는 지방행정 체계를 완성했을 뿐, 지방에서는 조선인 재지 세력과 일제의 지배 권력은 길항관계에 있었다. 일제는 지역의 조선인 재지 세력을 포섭할 필요가 있었는데, 1920년 7월 개정된 「부제 시행규칙」과 「면제 시행규칙」으로 설치된 부·면협의회가 그러한 기능을 했다.⁵⁵⁾ 일제는 부·면협의회와 학교평의회 설치를 “조선에서 지방의 민도 사정에 부합하도록 부(府) 혹은 부에 준할 만한 지방은 민선주의(民選主義)를 채택”한다는 명분으로 법규를 개정했다. 그러나 실상은 부·면협의회와 학교평의회는 의결 권한이 없는 자문기관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일제는 표면적으로는 “완전한 지방자치를 위한 준비” 단계라는 이유를 내세웠다.⁵⁶⁾

이러한 배경 아래 사이토 취임 후 총독부는 “민의창달”과 지방자치에 대한 연습이라는 명목으로 “제한된” 지방자치제에 돌입한다.⁵⁷⁾ 면의 경우 지정면과 일반면을 구분하여 지정면에 대해서만 면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었다. 앞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이리가 소재한 익산면은 지정면의 조건⁵⁸⁾을 갖춘 곳이

54) 홍순권, 2011, 「일제 초기의 면 운영과 조선면제의 성립」, 『근대 도시와 지방권력』, 선인, 329-334쪽.

55) 김익한, 2006, 「일제의 면 지배와 농촌사회구조의 변화」, 『일제 식민지 시기의 통치체제 형성』, 혜안, 84-87쪽.

56) 오다 쇼고(박찬승 외 역), 2018, 『국역 조선총독부30년사』 上, 민속원, 317-318쪽; 동선희, 2006, 「일제하 조선인 도편의회·도회의원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1쪽.

57) 오다 쇼고(박찬승 외 역), 2018, 『국역 조선총독부30년사』 上, 민속원, 317쪽.

58) 지정면의 요건을 살펴보면, ①일본인이 다수 거주한 시가지, ②상공업지로서 공공시설 존재, ③호수는 1,500호 이상, ④면협의회 선거권을 가진 자가 수백 명 존재해야 할 것, ⑤면부과금이 1호당 평균 7원 이상인 곳이 대상 지역이었다. 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는다면 지정면이 될 수 없었다(홍순권, 2011, 「1920년대 도시개발사업과 지역 유지층의 정치참여」, 『근대 도시와 지방권력』, 선인, 280쪽.).

었다. 이리역을 중심으로 상업이 발달했고, 일본인 거주자가 다수였던 곳이었다. 이처럼 경성을 비롯한 각 지방의 주요 도시인 부(府)나 준도시 내지 시가지 지역인 지정면에 선거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였다는 것은 일제의 지방자치제가 식민통치하의 도시개발, 즉 식민지근대화 사업과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⁵⁹⁾ 이렇게 제한된 지방자치제 아래 1920년 이리에서 최초로 면협의원 선거가 실시된다.

표 11. 1920년대 익산 면협의원의 민족별 당선인

	조선인	일본인
1920년	문겸옥, 김병기, 김상경, 이희협, 이성희, 이준상, 전용진	橫道只之助, 靑田竹治, 矢野龜五郎
1923년	김화형, 이봉교, 마기홍, 문병옥, 이근수	扇米助, 橫道只之助, 土車仁作, 古川千代吉, 靑田竹治
1926년	문병옥, 김내희, 이원용, 조원, 김병수, 문치순	山崎增平, 藤田好助, 土車仁作, 板井信藏, 堂本五郎松, 大木房男
1929년	-	-

*자료: 『各地選舉結果: 裡里面協議員』, 『매일신보』, 1920.11.23.; 『各協議員選舉狀況』, 『조선일보』, 1923.11.24.; 『益山面協議員 選舉終了』, 『부산일보』, 1926.11.22.; 藤村德一, 1931, 『全鮮府邑會議員銘鑑』, 朝鮮經世新聞社, 138쪽.

*강조는 2회 이상 당선된 인물임.

<표 11>은 1920년대 익산 면협의원에 당선된 조선인과 일본인 명단이다. 일반적으로 부(府)협의회 선거의 경우 일본인 당선인 비율이 조선인에 비해 우세하게 나타나는 편인데, 익산면의 경우 어느 한쪽이 우세하거나 열등한 수준까지는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먼저 1920년 면협의원 선거에서는 총 10명이 당선되었다. 이 중 7명이 조선인이었는데, 문겸옥(文兼玉), 김병기(金炳基), 김상경(金相敬), 이희협(李熙協), 이성희(李成熙), 이준상(李俊相), 전용진(田容鎭) 등이다. 그리고 일본인은 요코미치 타다노스케(橫道只之助), 아오타 다케지(靑田竹治), 야노 쿠고로(矢野龜五郎) 등 3명이 당선되었다.⁶⁰⁾ 당시 면협의회원의 선거자격⁶¹⁾ 요건상 부유한 일본인, 조선인 지주, 자본가, 관리 등 사실상 지역

59) 홍순권, 2011, 『1920년대 도시개발사업과 지역유지층의 정치참여』, 『근대 도시와 지방 권력』, 선인, 280쪽.

60) 조선인 당선자 중 문겸옥은 문병옥의 오기로 판단된다(『各地選舉結果: 裡里面協議員』, 『매일신보』, 1920.11.23.).

61) 면협의원 자격 요건은 1년 이상 해당 면에 주소를 두고, 독립생계를 영위하는 남자를 대상으로 했고, 면 부과금을 연 5원 이상 납부한 자로 한정했다(오다 쇼고(박찬승 외 역), 2018, 『국역 조선총독부30년사』, 민속원, 317-318쪽).

내에 존재한 일부 “유력자”에 한정되었다는 점에서 조선인 당선자들은 익산면 내에서 상당 부분 영향력을 행사했던 인물들로 판단된다. 당시 선거 결과를 전국적으로 보았을 때, 24개 지정면 중 11개 면에서는 일본인 당선자 수가 많았지만, 6개 면은 거의 동수였고, 나머지 7개 면에서만 조선인 당선자가 많았다.⁶²⁾ 그 7개 면 중에서 익산면이 포함된 것이다. 이점에 대해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데, 앞에서 보았듯이 1910년대 이리의 도시개발을 주도했던 부류가 이리의 재조일본인들이었다는 점이다. 그런데도 최초 면협의회원 선거에서 조선인 당선자가 70%를 차지한다는 점은 다소 의외인 부분이다.

1923년 면협의회원 선거 결과를 보면, 조선인 5인, 일본인 5인이 당선되었다. 조선인 당선자가 소폭 감소한 것은 일련의 사건 때문으로 보인다. 1923년 11월 14일 『동아일보』 기사를 보면, 익산면 내 일본인들은 면협의회원에 당선되는 것을 “명예이자 영광”이라 했지만, 조선인 유지들은 “불공(不尙)한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이유로 “1920년에 비해 조선인 유권자가 감소했고, 일본인 유권자는 증가하였다”라고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조선인 유권자는 112명, 일본인 유권자는 167명으로 선거가 진행됐다. 그 결과 조선인 당선자는 김화형(金和炯), 이봉교(李奉敎), 마기홍(馬箕洪), 문병옥, 이근수(李根秀) 등 총 5명이, 일본인은 오오기 요네츠케(扇米助), 요코미치 타다노스케(横道只之助), 쓰치구루마 진사쿠(土車仁作), 후루카와 치요키치(古川千代吉), 아오타 다케지(青田竹治) 등 총 5명이 당선되었다.⁶³⁾

1926년 선거 결과를 보면 총 12인이 당선되었다. 조선인 당선자는 문병옥, 김내희(金內熙), 이원용(李源鎔), 조원(趙遠), 김병수(金炳洙)⁶⁴⁾, 문치순(文致淳) 등 6인이다. 일본인 당선자를 보면 야마자키 마스헤이(山崎増平), 후지타 요시스케(藤田好助), 쓰치구루마 진사쿠(土車仁作), 이타이 신쥬(板井信藏), 도모토 고로마츠(堂本五郎松), 오오키 후사오(大木房男) 등 총 6명이다.⁶⁵⁾

다음으로 익산 면협의회원에 당선된 일본인들과 그들의 활동을 살펴보자. <표 12>는 1920년대 면협의회원 당선자들의 주요 경력을 정리한 것이다. 간략히 정리하자면 일본인 당선자들의 주요 직업군은 상인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그들의 주요 이력을 살펴보면 농업과 기업 관련 종사자들도 눈에 띈다.

62) 손정목, 1992, 『한국지방제도·자치사 연구』 (상), 일지사, 208-209쪽.

63) 「各協議員選舉狀況」, 『조선일보』, 1923.11.24.

64) 1919년 3·1운동 당시 독립선언서를 군산으로 전달했던 독립운동가이자 삼산의원을 운영했던 김병수이다.

65) 「益山面議 選舉」, 『조선일보』, 1926.11.22.

표 12. 1920년대 익산 면협의원 일본인 당선자와 신상

	성명	거주지	직업	주요 이력
1	矢野龜五郎	이리	상인	야노상점 대표, 익산 면협의원
2	扇米助	이리 日出町	상인/농장주	이리번영조합 간사, 이리학교조합 관리자, 이리위생조합 평의원, 이리금융조합 평의원, 도량형기 매매, 황등산업주식회사 감사, 익산 면협의원
3	横道只之助	이리	상인	요코미치상점 대표, 이리학교조합 관리자, 익산 면협의원
4	土車仁作	이리	상인	쓰치구루마상점 대표, 익산 면협의원, 이리학교조합 의원, 육군 보병 伍長, 제국제향군인 이리분회 회장
5	古川千代吉	이리	상인	후루카와상점 대표, 이리번영조합 평의원, 이리금융조합 평의원, 익산 면협의원
6	青田竹治	이리 曙町	농업/기업인	이리현병분대 분대장, 화성농장 지배인, 이리재향군인 이리분회 회장, 전북여고위키결정 협의회 위원, 황등산업주식회사 이사, 전북공업학교 발기위원, 용진수리조합장, 이리금융조합장, 이리학교조합 의원, 익산 면협의원, 전북축산주식회사 이사, 삼화주식회사 대표, 이리어채시장주식회사 이사, 전북기업주식회사 이사, 경성고무주식회사 감사, 백우창도광업주식회사 이사
7	山崎増平	이리	농업	오하시농장 지배인, 이리학교조합 의원, 익산 면협의원, 전북축산주식회사 이사
8	板井信藏	이리 日出町	농업	육군사관학교 졸업, 공주수비대장, 익산면 초대면장, 이리학교조합 의원, 익산 면협의원, 이리소방조 조장, 제국제향군인회 이리분회 회장, 전북도평의원, 이리농림학교 건설위원, 이리고등여학교 건설위원, 이리시민회 회장
11	大木房男	이리	상인/관리/기업인	군산전기회사 회계주임, 오오키상점 대표, 임익수리조합, 임옥수리조합 이사, 전북상사주식회사 지배인, 이리체육협회 회장, 이리어채회사 사장, 이리금융조합 의원, 조선섬유공업회사 중역, 이리학교조합 의원, 익산 면협의원, 국방의회 의원, 전북비료주식회사 이사
12	堂本五郎松	이리	상인	도모토백화점 대표, 익산 면협의원

*자료: 朝鮮公論社, 1917, 『在朝鮮內地人紳士名鑑』, 朝鮮公論社; 宇津木初三郎, 1928, 『全羅北道發展史』, 文化商會; 藤村徳一, 1931, 『全鮮府邑會議員銘鑑』, 朝鮮經世新聞社; 朝鮮新聞社, 1935, 『朝鮮人事興信錄』, 朝鮮人事興信錄編輯部; 阿部薫, 1935, 『朝鮮功勞者銘鑑』, 民衆時論社; 鎌田白堂, 1936, 『朝鮮の人物と事業』, 實業之朝鮮社出版部; 中村資良, 1941, 『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 東亞經濟新報社를 바탕으로 재구성함.

<표 12>를 통해 1920년대 이리에서 소위 지배 권력을 행사했던 재조일본인들을 파악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주목할 만한 인물은 아오타 다케지(青田竹治), 이타이 신쥬(板井信藏), 오오키 후사오(大木房男) 등 3인이다. 먼저 아오타 다케지부터 보면, 그는 1920년대 면협의원에 2회 당선되었다. 후쿠시마현 출신으로 1895년부터 일본육군에 소속되어 러일전쟁에도 참전했다. 1913년 처음 조선에 오게 되는데, 황해도 해주(海州)헌병분대 분대장으로 시작하여 1915년 전주, 1917년 남원을 거쳐 1918년에 이리헌병분대 분대장으로 왔다. 즉 그는 군인자격으로 이리에 처음 발을 디뎠다. 아오타는 1919년 퇴역 후 이리에 정착하여 백남신(白南信)이 운영했던 화성농장의 경영권을 넘겨받아 지배인 자격으로 농장을 운영했다.

그의 행적을 살펴보면 이리의 “대표적인 사업계 중진”이라고 불릴 정도로 왕성한 활동을 전개했다. 아오타 같은 경우를 산업자본가형 농의 투자자로 일컬을 수 있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그는 이리뿐만 아니라 전북, 그리고 서울까지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동했다. 또한 눈에 띄는 이력은 일본인으로서 특이하게 조성인 농장에 예속되어 산업투자 활동을 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지역사회 활동 중 두드러지는 부분은 이리농림학교 설립청원자 중 한 명이며, 전북여고위치결정협의회와 전북공업학교 발기위원으로 활동했다는 점이다.⁶⁶⁾ 이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아오타 다케지는 1920년대 이리뿐만 아니라 전북지역에서 ‘유력자’로서 활동한 일본인이다. 군 출신이면서 특이하게도 조선인 농장의 지배인이었지만, 지역사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했음은 분명하다.

다음으로 살펴볼 인물은 이타이 신쥬(板井信藏)이다. 『조선인사홍신록』에서는 그를 “이런 인물을 가지고 있는 이리 지방민은 물론 전라북도 전체의 행운이다. 조선통합과 조선개발에 있어 잊을 수 없는 인물”이라고 평가하고 있다.⁶⁷⁾ 이타이는 후쿠오카현 출신으로 앞서 보았던 아오타 다케지와 마찬가지로 군인 출신이다. 러일전쟁에 참전한 이력이 있으며, 1911년 충남 공주수비대

66) 朝鮮公論社, 1917, 『在朝鮮內地人紳士名鑑』, 朝鮮公論社, 434쪽; 『女高位置問題로 益山郡民大會』, 『조선일보』, 1926.01.31.; 『全北工校期成會』, 『조선일보』, 1926.03.20.; 藤村德一, 1931, 『全鮮府邑會議員銘鑑』, 朝鮮經世新聞社, 139쪽; 朝鮮新聞社, 1935, 『朝鮮人事興信錄』, 朝鮮人事興信錄編輯部, 4쪽; 阿部薰, 1935, 『朝鮮功勞者銘鑑』, 民衆時論社, 248쪽; 中村資良, 1942, 『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 東亞經制時報社; 최원규, 2006, 『일제하 일본인 지주의 농장경영과 농외투자』, 『일제하 만경강 유역의 사회사』, 혜안, 277-278쪽; 마쓰모토 다케노리, 2016, 『식민지 조선의 농업학교와 지역사회』, 『역사문화연구』 59,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47-48쪽.

67) 朝鮮新聞社, 1935, 『朝鮮人事興信錄』, 朝鮮人事興信錄編輯部, 41쪽.

장직을 수행했다. 이후 1914에는 소좌(少佐)로 진급한 뒤 퇴역했고, 다시 조선으로 넘어와 이리에 정착했다. 이후 그는 농장 경영과 토지개간 사업을 하며 익산을 비롯한 옥구, 김제, 전주에 걸쳐 토지매매를 통해 상당한 부를 축적했다. 이 밖에도 이리에서 상당히 많은 직책을 맡았다.

이타이 신조의 주요 활동 내용을 보면 1915년 「면제」 실시 이후 익산면의 초대면장으로 임명되었다. 그와 동시에 이리학교조합 관리자를 겸임했는데, 이리 도시 개발 초기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1920년대에 주목할 부분은 이리농림학교와 이리고등여학교 설립에 건설위원으로 임명되어 학교 유치에 상당 부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난다. 지역사회에 있어서는 김제에 있던 동양척식주식회사를 이리로 이전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했고, 총독부에 만경강 직강공사를 설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이리에서의 여러 활동 경력은 곧 전북 도평의원 임명으로 이어진 것으로 생각된다.⁶⁸⁾ 그의 수많은 이력으로 보아 1920년대 이리의 재조일본인 사회에서 이타이 신조는 존경받는 위치 또는 유지로서 지방에서 지배 권력을 장악했던 인물로 추정된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인물은 오오키 후사오(大木房男)이다. 그는 교토 출신으로 와세다대학(早稻田大學) 상업과를 졸업했다. 1912년 조선으로 이주하여, 군산에 처음 정착했다. 그는 군산에서 전공을 살려 군산전기회사 회계주임을 맡았다. 그러던 중 1914년 임익수리조합으로 초빙되어 이리로 이주했다. 이 시기 이리에서 물품 매매, 중개 및 대행업을 전문으로 하는 오오후사(大房)상점을 개업했다. 이후 1920년 익옥수리조합 이사를 맡게 되었고, 전북과 이리의 경제계에서 왕성한 활동을 보인다. 1920년 전북상사주식회사를 창립하여 지배인을 역임했고, 이리어채회사 사장, 조선섬유공업회사 이사를 역임하면서 이리 경제계의 중진으로 성장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선공로자명감』에서는 오오키를 “호남지방 비료계의 중진”이라고 평가하는데, 이러한 평가는 1927년 전주의 유력 재조일본인 중 한 명인 오오키 료사쿠(大木良作)가 설립한 전북비료주식회사 이사로 참여한 이후인 듯하다. 전북비료주식회사는 비료 제조 및 판매, 농기구 제조 및 판매, 종자 및 묘목 판매, 곡류 및 잡화 판매 등을 했는데, 이 회사에서 오오키의 활동이 두드러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지역사회에서의

68) 朝鮮公論社, 1917, 『在朝鮮內地人紳士名鑑』, 朝鮮公論社; 朝鮮新聞社, 1935, 『朝鮮人事興信錄』, 朝鮮人事興信錄編輯部, 41쪽; 森川清人, 1935, 『朝鮮總督府施政二十五周年記念表彰者名鑑』, 表彰者名監刊行會, 986쪽; 阿部薰, 1935, 『朝鮮功勞者銘鑑』, 民衆時論社, 168쪽; 鎌田白堂, 1936, 『朝鮮の人物と事業』, 實業之朝鮮社出版部, 26쪽.

활동은 이리상공회 회장, 익산 면협의원, 이리 읍회의원, 이리학교조합 의원, 국방의회 의원직 등이다. 이와 관련하여 수차례의 표창과 감사장을 받는다.⁶⁹⁾ 오오키 후사오는 앞서 살펴본 두 인물과 달리 농업을 기반으로 성장한 인물이 아니다. 처음부터 상업을 기반으로 성장한 인물로 지역의 경제 분야에 영향력을 행사한 인물이었다. 특징적인 것은 앞의 두 인물은 지역개발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그의 지역사회 활동은 그다지 눈에 띄는 부분은 없다.

그렇다면 1920년대 정치세력으로 부상한 이리의 재조일본인들은 지역 내 현안을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했을까. 재조일본인들은 지역단위의 주민대회를 통해 지역과 주민의 이해와 관련된 사안들을 해결하려 했다. 주민대회는 지역 주민이 식민행정 당국과 “외형상”으로는 대등하게 만나는 자리이기도 했다. 그리고 주민대회를 주도한 계층이 지역에서 지배 권력을 행사했던 인물들이었다는 점에서 이들과 지역주민 간에 긴밀하게 결합하는 자리가 되기도 했다. 주민대회는 면협의회가 의결권이 없는 자문기구에 불과했기 때문에 개최된 것이다. 그래서 지역의 유지들은 자신들의 의사를 보다 효과적으로 식민당국에 전달하기 위해 주민대회를 이용한 것이다. 주민대회는 수렴된 의견을 면이나 군 당국에 전달하기도 했지만, 면협의원들이 식민당국의 정책을 대변하여 식민당국의 정책적 결정을 전파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⁷⁰⁾ 이리가 속한 익산면에서도 이러한 주민대회의 모습을 찾을 수 있는데, 이른바 면민대회 또는 시민대회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리의 주민대회는 철저히 재조일본인 사회의 불편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벌어졌다. 최초의 주민대회는 일본인 단체 중 하나인 이리시민회 주관으로 1922년 12월에 이리 시가지의 전등(電燈) 문제와 고등여학교 설치에 관한 내용으로 발생했다. 고등여학교 설치 문제로 도 당국과 이리의 재조일본인 사이에 갈등을 빚어 온 것으로 보인다. 1924년 1월에는 고등여학교 설치와 관련하여 전북 도평의회 안건으로 상정되었지만 부결되었다. 그리고 같은 해 2월에는 세무감독국, 공설시장과 고등여학교 문제로 재차 시민대회가 개최되었다. 대회에서는 “호남 일대의 중앙인 이리에 설치하도록 당국에 진정하여 최후까지라도 운동을 철저히 하자”라고 결의했다. 결국에는 같은 해 4월 이리고등여

69) 中村資良, 1929, 『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 東亞經制時報社; 朝鮮新聞社, 1935, 『朝鮮人事興信錄』, 朝鮮人事興信錄編輯部, 80쪽; 阿部薫, 1935, 『朝鮮功勞者銘鑑』, 民衆時論社, 653쪽; 鎌田白堂, 1936, 『朝鮮の人物と事業』, 實業之朝鮮社出版部, 268쪽.

70) 한상구, 2013, 『일제시기 지역주민운동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3-4쪽; 홍순권, 2011, 『1920년대 도시개발사업과 지역유지층의 정치참여』, 『근대 도시와 지방권력』, 선인, 289쪽.

학교 설립을 인가받았고, 1925년 이리고등여학교가 설립됐다.⁷¹⁾

1923년에는 세무감독국 유치 문제로 주민대회가 발생했다. 총독부는 지방 5개 지역에 세무감독국을 설치하려 했다. 대상지는 경성, 평양, 원산, 대구, 전주였다. 이리를 비롯한 많은 지역에서 세무감독국을 유치하기 위해 위원들을 파견했고, 이리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하여 주민대회를 개최했다. 당시 총독부는 전주에 전복을 총괄하는 세무국을 세우려 했지만, 이리, 군산, 옥구, 김제에서는 “편의적 세무감독국의 위치를 이리로 지정해달라”라는 진정서를 총독부에 제출했다. 그만큼 이리의 세무감독국 유치는 치열했다. 이에 세무감독국 유치전은 전주와 이리 간의 다툼을 불러일으켰다. 이 과정에서 전주의 유지들이 이리 측에서 “전주에 감독국을 설치함이 옳다”라는 거짓 진정서를 총독부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이리의 유지들은 크게 반발하여 감독국설치위원회를 개최했고, 청원서를 총독부 당국에 제출할 정도로 치열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주민대회가 개최됐다.⁷²⁾

이러한 와중에 총독부는 돌연 전라남북도를 총괄하는 세무감독국의 위치를 광주로 변경했다. 세무감독국 설치 문제는 곧 전주와 광주 간 다툼으로 전환됐다. 이 문제는 10여 년간 논쟁과 번복이 지속됐고, 결국에는 5개 지역 세무감독국 관할의 세무서 설치로 타협을 보게 된다. 전북지역에는 군산, 전주, 이리, 김제, 정읍, 진안, 남원, 금산 등 8개 지역에 설치되어 마무리된다.⁷³⁾ 이 밖에도 이리의 주민대회는 철도 노선 변경, 이리군영(軍營) 유치, 학교 유치, 읍명(邑名) 개칭 등을 이유로 개최되었다.⁷⁴⁾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20년대의 재조일본인 사회는 지역 내에서 제한된 자방자치체를 통해 정치세력으로 부상했다. 이들은 1910년대에는 조합을 중심으로 도시개발 전반에 걸쳐 활동했다면, 1920년대에는 면협의회 제도를 통해 지역 정치에 참여하여 그들의 이권을 확보하기 위해 주민대회를 이용했다. 그

71) 『裡里市民大會, 電燈과 高女問題』, 『매일신보』, 1922.12.18.; 『裡里市民大會』, 『동아일보』, 1924.02.18.; 『裡里市民大會의 決議』, 『조선일보』, 1924.02.21.; 『女敎設立認可』, 『동아일보』, 1924.04.06.; 『裡里高等女學校 試驗』, 『부산일보』, 1925.07.12.

72) 『稅務局의 位置』, 『동아일보』, 1923.11.07.; 『稅務監督局 位置運動』, 『조선일보』, 1923.11.26.; 『稅務局問題로 裡里人士의 決議』, 『조선일보』, 1924.01.25.

73) 『全州의 撤市廢燈』, 『동아일보』, 1924.04.15.; 『總督彈劾』, 『동아일보』, 1924.04.18.; 『稅務監督局, 稅務署의 管區와 位置 決定發表』, 『동아일보』, 1934.04.14.

74) 『女高位置問題로 益山郡民大會』, 『조선일보』, 1926.01.31.; 『運動의 方向을 轉換하여 工業學校發起』, 『동아일보』, 1926.02.17.; 『鐵道線 變更과 裡里市民 反對』, 『중외일보』, 1927.11.25.; 『裡里軍營設置問題로 市民大會開催 邑名改稱을 機會로 準備』, 『매일신보』, 1931.10.30.

서 주민대회를 통해 이들은 도시 전체의 이득보다 소수를 점하는 일본인들과 조선인 유지층의 이익을 반영하는 데 앞장섰다. 이로써 정치세력화된 이들을 통해 ‘일본인에 의한, 일본인의 도시’로 한층 더 식민도시로 진전된다.

3) 읍 승격과 식민지배 체제의 강화

1931년에는 읍면제(邑面制)가 시행되면서 조선의 41개 지정면이 읍으로 승격된다. 이 가운데 이리가 속한 익산면도 승격되어 익산읍이 된다.⁷⁵⁾ 그리고 같은 해 10월에는 익산읍에서 이리읍으로 읍명을 개칭했다. 즉 이리의 급격한 도시화로 일개 리(里)였던 “이리”가 지역을 대표하는 “읍”으로 그 위상이 높아진 것이다.⁷⁶⁾ 이에 따라 읍으로 승격된 지역은 부(府)에 가까운 제도로 정비되었다. 읍 승격으로 기존에 존재했던 면협의회는 읍회로 승격되었다. 그동안 면협의회가 자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면, 읍회는 제도적으로 의결권을 부여받았다.⁷⁷⁾

읍 승격 이후 이리의 도시화는 한층 더 진전된다. 1932년에는 읍 구역이 확장되어 인접 면인 오산면 소하리 일부, 송만리, 목상리가 이리에 편입됐다.⁷⁸⁾ 그리고 기존 도로망인 사카에마치(榮町)와 모토마치(元町)의 도로 폭이 확장된다. 한편 시가지 외곽인 동산리와 고현리에는 도로가 신설된다.⁷⁹⁾ 또한 1930년부터 착공한 상수도는 1933년 완공되어 이리 시가지로 상수도가 공급되기에 이른다.⁸⁰⁾ 1933년 정제(町制) 시행으로 기존에 있던 리(里)가 정(町)으로 개편된다.⁸¹⁾ 조선인 거주지역이었던 구이리는 마동리를 잇는 도로가 신설되면서 아케보노초(曙町)로 개편되었고, 시가지를 둘러싸고 있던 마동리, 동산리, 고현리, 남중리도 각각 마동정, 동산정, 고현정, 남중정으로 개편된다.⁸²⁾ 이 밖에도 도시의 확장뿐만 아니라 관공서를 비롯한 공공시설이 이리에 설치된다. 1936

75) 1931년 읍으로 승격된 지역은 다음과 같다. 전북(전주, 익산, 정읍), 전남(광주, 여수, 제주), 경북(김천, 포항, 경주, 안동, 상주), 경남(진주, 진해, 통영, 밀양, 동래), 황해(해주, 곽이포, 사리원), 평남(안주), 평북(의주, 정주, 선천, 강계), 강원(춘천, 강릉, 철원), 함남(북청), 함북(나남, 성진, 회령, 웅기) 등 41개 지역이 읍으로 승격되었다(『地方自治制實施와 四十一邑 指定』, 『동아일보』, 1931.01.10.).

76) 『益山邑の, 全羅北道名稱な裡里邑と改稱, 十一月一日から』, 『조선신문』, 1931.10.23.

77) 오다 쇼고(박찬승 외 역), 2018, 『국역 조선총독부30년사』中, 민속원, 2018, 577쪽.

78) 『裡里邑 發展 區域을 擴張』, 『동아일보』, 1932.08.28.

79) 『裡里邑의 道路網完備』, 『동아일보』, 1933.03.28.

80) 『裡里上水道 十月부터 通水』, 『동아일보』, 1933.03.28.

81) 『裡里邑의 町名改正 十個町決定』, 『매일신보』, 1933.08.29.

82) 『裡里道路의 新鋪裝工作』, 『동아일보』, 1934.06.15.

년에는 이리비행장이 설치되어, 경성과 이리를 잇는 주 1회 정기 항공 노선이 개항했다. 그리고 1938년에는 호남 지역으로 송출하는 이리방송국이 개국했다.⁸³⁾ 이처럼 이리는 1930년대에 일본인을 위한 전복의 수탈거점 도시로 정점을 맞이하게 된다.

도시화와 함께 이리의 재조일본인 사회는 어떤 변화를 겪고 있었을까. 일제강점 초기 이리에 이주했던 오하시 소쿠조(大橋即淨)의 일기에 따르면 1910년대부터 뇌모자강(賴母子講)이 유행이었다. 뇌모자강은 다노모시코(たのもしこう)라 불린 일종의 낙찰계(契)로 저금과 용자를 위해 몇 명이 사람이 모여 만든 모임이다. 다시 말해 일종의 사금융 조직인 것이다. 1928년 이리에서는 뇌모자강의 지나친 개설로 이리의 재조일본인 경제계의 파탄을 초래했다. 이를테면 낙찰자가 차입증서에 위조 날인한 문건이 돌아다니거나, 계 금액을 낙찰자에게 완전히 돌려주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뇌모자강 문제는 이리 경제계를 파탄시켰고, 결국엔 경찰의 개입을 불러일으켰다. 부정행위를 일삼은 뇌모자강은 정리되고, 일부 일본인 상인들은 파탄을 맞아 자살하기까지 했다.⁸⁴⁾ 뇌모자강 파탄 사건 이후 이리에는 무진(無盡)주식회사가 설립되었다. 사실 무진주식회사는 1921년 「조선무진령」에 따라 전국에 설립되었지만, 이리에서는 뇌모자강이 성행하여 설립되지 못했다. 그러나 1928년의 사건으로 1932년에 이리에 무진주식회사가 설립되었고, 오하시 소쿠조가 이리무진주식회사의 취체역(取締役)으로 선출된다. 따라서 이리의 뇌모자강 파탄 사건은 이리의 경제계가 일본인들에 의해 좌지우지되었음과 경제의 취약성을 드러낸 일대의 사건이었다.

1930년대 일제가 대륙침략의 야욕을 드러내면서 조선의 식민지배 체제는 강화되었고, 이에 따라 민족말살정책이 시작된다. 이리에서도 제국주의의 광풍이 감돌게 된다. 중일전쟁이 한창인 1937년과 1938년에는 각각 난징(南京) 함락과 쉬저우(徐州) 함락 전승축하대회를 이리읍 주최로 진행했다. 이때 학생들과 이리 일대의 시민들이 동원되어 제등행렬이 성황을 이루었다고 한다. 그리고 ‘시(時)’의 기념을 위해 이리시민들이 동원되어 황성요배를 하고 전사한 일본군을 기리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⁸⁵⁾ 한편 일제는 식민지배 체제가 전시체

83) 『裡里飛行場理想的의適地 長尾航空官現場視察 一氣에 呵成?』, 『매일신보』, 1934.07.19.; 『京城裡里 定期航空 十三日부터 開通』, 『조선일보』, 1936.10.13.; 『裡里放送局 設立을 確定』, 『동아일보』, 1936.03.06.; 『咸興, 裡리에 放送局 認可』, 『동아일보』, 1938.07.12.; 『裡里放送局 開局式 盛大 三百餘名 官民 出席裡』, 『조선일보』, 1938.10.03.

84) 오하시 소쿠조(양은용 역), 2020, 『조선주재 36년』, 익산문화도시사업단, 66-72쪽; 『佐佐木遂 破綻 經濟界에 暗影』, 『동아일보』, 1928.09.18.

제로 전환된 이후 전쟁 수행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시민을 대상으로 저축을 장려했다. 그리고 전쟁 물자 비축을 위해 물자절약운동이 벌어지기도 하는데, 이리에서는 가솔린 절약을 위해 도로 살수가 중지되기까지 한다. 1938년 9월에는 ‘국민정신총동원’의 일환으로 이리읍연맹이 결성된다. 이리읍장과 이타이 신쥬(板井信藏) 주도로 결성된 단체에는 일부 조선인 유지들이 참여했다.⁸⁶⁾

이처럼 1930년대를 거치면서 이리는 일제 식민권력의 비호 아래 재조일본인 주도로 ‘일본인에 의한, 일본인을 위한’ 도시로 식민지배 체제가 더욱더 강화된다. 이로써 이리는 식민지의 성격을 강하게 갖는 식민도시로 전략하게 된다.

5. 나가며

이상에서와 같이 일제강점기 전북 이리의 도시화 과정과 재조일본인 사회의 형성과 변동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에 따른 이리의 식민도시화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내용을 요약하면서 이리의 도시개발과 재조일본인 사회를 다음과 같이 특징지어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일제 강점 이전 익산군의 중심지였던 금마는 근대적 교통체계의 재편으로 급격한 쇠퇴를 겪었다. 반면 군산과 전주의 기착지였던 이리는 근대적 교통체계에 편입되어 급격한 성장을 이루었고, 근대적 의미의 도시로 발달하게 된다. 이리의 급격한 성장에는 호남선 철도와 이리역이 있었지만, 이리역은 근대를 상징하는 공간임과 동시에 일본인에게는 식민권력의 핵심 공간이기도 했다. 즉 이리의 근대도시화 과정은 역설적이게도 일본인을 위한 식민도시의 건설 과정이기도 했다.

호남선 철도와 이리역은 일본인의 이주를 불러일으켰고, 식민도시 형성의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들만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 1910년대 도시개발 초창기에는 이리번영조합과 이리학교조합 같은 식민도시 건설의 첨병 역할을 하는 단체가 조직되었다. 그러나 도시개발의 기본이 되었던 단체 기금은 조선인들로부터 혈값에 매입한 토지로부터 발생한 것이었다. 이리의 조선인 토지는 투기의 대상이자 그들만의 도시를 개발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했다. 그

85) 『各地의 戰勝祝賀』, 『동아일보』, 1937.12.16.; 『徐州陷落祝賀式』, 『동아일보』, 1938.05.24.; 『裡里 ‘時’의 記念』, 『동아일보』, 1938.06.11.

86) 『益山 貯蓄獎勵 百二十萬圓을 目標』, 『동아일보』, 1938.07.10.; 『裡里撒水中止 ‘가솔린’ 절약 위해』, 『동아일보』, 1938.07.31.; 『裡里邑聯盟 結成』, 『동아일보』, 1938.09.14.

결과 10년이 채 지나기 전에 도시기반이 완비되었고, 1917년에는 일본인 다수 거주지인 지정면이 되었다. 다시 말해 이리는 일본인들로서는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했다.

1920년대의 소위 “문화정치”는 일본인들의 식민지배 권력을 다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제한된” 지방자치제를 통해 그들은 지역의 정치세력으로 부상했고, 주민대회라는 방식으로 면정에 개입했다. 그러나 주민대회는 철저히 이리의 일본인을 위해 진행됐고, 그들만을 위한 식민도시의 경관을 완성해 나갔다. 고등여학교와 세무감독국 유치를 위한 투쟁은 조선인을 위한 것이 아닌 이리의 일본인을 위한 것이었다. 즉 도시개발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이리의 재조일본인들이었다. 그 결과 1930년대에는 부(府)에 준하는 읍으로 승격하기에 이른다. 이처럼 이리는 호남선과 이리역을 매개로 침투한 일본인들은 일제의 식민지배 권력의 비호 하에 주도적으로 진행됐고, 결국 이리는 식민도시로 전략하게 된다.

논문접수일: 2022. 05. 21. / 심사개시일: 2022. 07. 19. / 게재확정일: 2022. 08. 01.

참고문헌

<원전자료>

- 『동아일보』, 『매일신보』, 『부산일보』, 『조선일보』
鎌田白堂, 1936, 『朝鮮の人物と事業』, 實業之朝鮮社出版部.
菊池謙讓, 1925, 『朝鮮諸國記』, 大陸通信社.
山下英爾, 1915, 『湖南寶庫 裡里案内』, 惠美須屋書店.
阿部薰, 1935, 『朝鮮功勞者銘鑑』, 民衆時論社.
宇津木初三郎, 1928, 『全羅北道發展史』, 文化商會.
全羅北道廳, 1913, 『全羅北道要覽』, 全羅北道.
朝鮮新聞社, 1935, 『朝鮮人事興信錄』, 朝鮮人事興信錄編輯部.
朝鮮總督府, 각년호, 『朝鮮總督府 統計年報』, 朝鮮總督府.
_____, 1925, 『簡易國勢調査速報』.
朝鮮總督府全羅北道 編, 1915, 『朝鮮總督府 全羅北道統計年報』, 全羅北道.
朝鮮總督府 鐵道局, 1940, 『朝鮮鐵道四十年略史』, 朝鮮總督府 鐵道局.
朝鮮總督府 中樞院, 1920, 『市場ニ關スル慣習(全羅北道 益山郡)』, 『全羅北道』,
朝鮮總督府中樞院.
中村資良, 1929, 『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 東亞經制時報社.

<단행본>

- 古川昭, 2005, 『湖南の日本人』, ふるかわ海事事務所.
김영정 외, 2006, 『근대 항구도시 군산의 형성과 변화』, 한울.
남태보, 2019, 『金馬誌』, 이의강 역, 익산시.
오일환 역, 2020, 『강제병합 이전의 전라북도 및 군산지역 상황』, 전북연구원
전북학연구소.
이리문화원 부속향토사연구소, 1989, 『내고장 裡里의 뿌리』, 이리문화원.
이리시사편찬위원회, 1989, 『이리시사』, 이리시사편찬위원회.
이형식 외, 2017, 『제국과 식민지의 주변인』, 보고사.
익산군지편찬위원회, 1981, 『익산군지』, 원광사.
익산문화원, 2006, 『익산향토지』 II, 익산문화원.

정재정, 1999, 『일제침략과 한국철도』, 서울대학교출판부.

홍성찬 외, 2006, 『일제하 만경강 유역의 사회사』, 해안.

홍순권, 2011, 『근대도시와 지방권력』, 선인.

<논문>

고윤수, 2018, 「재조일본인 쓰지 긴노스케를 통해서 본 일제하 대전의 일본인사회와 식민도시 대전」, 『서강인문논총』 51권, 67-105쪽.

김경남, 2018, 「제국의 식민지 교통 통제 정책과 이리 식민도시 건설」, 『지역과 역사』 43권, 275-318쪽.

김동노, 2006, 『일제 식민지 시기의 통치체제 형성』, 해안.

김일수, 2016, 「일제강점기 김천의 일본인사회와 식민도시화」, 『사림』 56호, 237-270쪽.

김하나, 2013, 「근대 서울 공업지역 영등포의 도시 성격 변화와 공간 구성 특징」,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동선희, 2006, 「일제하 조선인 도평의회·도회의원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국학중앙연구원.

마츠모토 다케노리, 2016, 「식민지 조선의 농업학교와 지역사회」, 『역사문화연구』 59권, 37-76쪽.

마쓰모토 다케노리, 정승진, 2018, 「호남 지역의 위생·의료문제」, 『의사학』 27권 3호, 357-395쪽.

손정목, 1992, 『한국지방제도·자치사 연구』 (상), 일지사.

송규진, 2002, 「일제강점 초기 식민도시 대전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지역발전연구』 108호, 201-225쪽.

송준호, 1983, 「1750년대 익산지방의 양반」, 『전북사학』 7권.

신귀백, 2020, 「재조 승려 오하시의 이리(裡里)에서의 식민활동 연구」, 『지방사와 지방문화』 23권 2호, 119-149쪽.

오다 쇼고, 2018, 『국역 조선총독부30년사』, 박찬승 외 역, 민속원.

오하시 소쿠쵸, 2020, 『조선주재 36년』, 양은용 역, 익산문화도시사업단.

이동훈, 2012, 「재조일본인 사회의 형성과 연구 논점에 관한 시론」, 『일본연구』 83호, 63-88쪽.

정승진, 2012, 「위계적 복합공간으로서의 식민도시, 이리」, 『아세아연구』 55권 4호, 198-228쪽.

- _____, 2015, 「식민지기 학교조합과 호남의 일본인 이민자사회」, 『대동문화연구』 90권, 329-370쪽.
- 조미은, 2010, 「일제 강점기 재조선 일본인 학교와 학교조합 연구」,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 진 실, 2014, 「일제강점 초기 일본인의 이리 이주와 도시 형성」,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 한상구, 2013, 「일제시기 지역주민운동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Abstract>

The Development of the Colonial City of Iri and the Trend of the Japanese Society

Lee, Myeong-jin*

This study analyzes the urban development process of Iri, Japanese colonial era, and summariz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Japanese society that led it and the process of establishing colonial power. Iri was integrated with Iksan-gun through urban-rural integration in 1995, and today's downtown area of Iksan was the core area of Iri. The development of Japanese colonial era Iri drew attention from the Japanese in that it was a stopover for Gunsan and Jeonju and a space to minimize conflicts with local forces in Iksan-gun. In 1912, the Japanese, who saw the possibility of developing Iri due to the Honam Line railroad and Iri Station, quickly migrated, and as a result, Iri achieved rapid urbanization. In this process, in the 1910s, the Japanese directly or indirectly intervened in urban development through unions. And in 1917, less than 10 years later, it became designated myeon. Under the limited local autonomy system in the 1920s, the Japanese, who led urban development in the 1910s, emerged as local political forces. They calmed down their requirements to the authorities through a residents' meeting, and some were reflected. Based on the colonial power built in this way, Iri is completed as the colonial city they wanted.

Key Words : Japanese resident groups in Iri, Colonial Cities, Myeon Council, Honam Line Railroad, Designated Myeon

* Assistant manager, Citizens Community Team, Iksan Cultural City Center

